

2022년-2023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이웃 발굴·지원
우수사례집



목차

2022년 입상작

1. 대상 : 김포시 마산동	9
마부“마산동을 부탁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원을 말해봐”	
2. 최우수상 : 광주시	13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올포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 최우수상 : 파주시 문산읍	17
어서와! 문산은 처음이지 문안 여쭙는 행복e음마을협의체	
4. 우수상 : 부천시	21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통해 부천시의 지역복지 공동체를 꿈꾸다	
5. 우수상 : 구리시 교문1동	25
극적인 안부 - 오늘이라 천만다행	





6. 장려상 : 파주시	29
아이들 미래를 꿈꾸다! 취약계층 학습지원사업 ‘꿈꾸는 다락방’	
7. 장려상 : 용인시 원삼면	34
독거노인 발래봉사 ‘孝드림 발래방’	
8. 장려상 : 광명시 철산4동	36
위기이웃 발굴 및 적극 개입	
9. 장려상 : 과천시 중앙권역(부림동)	38
100년 만의 폭우 속에 피어나는 이웃의 정	
10. 장려상 : 수원시	40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목차

2023년 입상작

- 1. 대상 : 안양시 석수2동 47
'혼심(혼자가 아니라 안심)'을 다한 병원동행 지원사업

 - 2. 최우수상 : 안성시 51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안성맞춤형 이웃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삶을 살다 '함께 더 삶'

 - 3. 최우수상 : 광주시 오포1동 55
직접 찾아가서 채워드립니다! "칸칸가득 지원사업"

 - 4. 우수상 : 오산시 59
고독 삶 예방을 위한「웰에이징 인 오산 서포터즈」양성사업

 - 5. 우수상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63
위기의 은둔형 (외톨이) 청년 발굴 사업 '용기 있는 도전에 희망을'
-





6. 장려상 : 의정부시	67
행복을 전하는 징검다리 의정부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피브릿지' 위촉 확대	
7. 장려상 : 동두천시 생연1동	70
“쓰담쓰담 함께 격려하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생연1동 복지로(路)”	
8. 장려상 : 안산시 원곡동	75
원곡동 다문화특구 -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를 위한 문화경제복지, 통합복지 실현	
9. 장려상 : 금촌2동	79
1인 가구 역량강화를 위한 금이동네 따뜻한 동행 "투게더(Together)! 따뜻함은 두 배 더!"	
10. 장려상 : 화성시 반월동	82
한 위기가구를 도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부제: 화성시 복지 위기지원 시스템 이상 무!)	



2022년

대 상

© 김포시 마산동

마부“마산동을 부탁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원을 말해봐”

지 역	김포시 마산동
사업기간	2021. 5. ~ 2026. 12.
사 례 내 용	<p>도시화로 급속히 발전 진행되고 김포시 마산동은 북부권에 위치해 있으며 도농복합도시이다. 2019년 개청되어 인구로서는 밀집 지역이긴 하나 지역의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지역임.</p> <p>우리 협의체에서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지원 연계하고자 위원들과 함께 네이밍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독려</p> <p>마부 “마산동을 부탁해” “마음 부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마산동은 약 15,000세대의 36,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취약계층 1,200여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1,100명, 한부모 100명, 사례관리 대상자 20여명이 거주하고 있음.</p> <p>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마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김포복지재단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원을 말해봐’ 사업을 진행함.</p> <p>이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평소 바라고 원하는 작은 소망 즉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 의지를 강화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p> <p>한 달여간 다양한 홍보를 통해 꼭 이루고 싶은 사연을 접수한 결과 44가구가 사연을 접수하였으며,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여 최종 20가구 선정함.</p> <p>접수된 사연으로는 <u>뇌병변장애가 있는 동생과 여행을 가고 싶다는 중학생, 운전면허를 취득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딸에게 좋은 곳을 보여주고 싶다는 아빠, 언어장애가 있는 딸의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고 싶다는 엄마, 초등학생 자녀 태권도 승급을 위한 심사비가 필요하다는 엄마</u> 등 진정성 있는 다양한 사연이 접수됨.</p>

사
례
내
용

[‘소원을 말해봐’ 제출 사연 中]

접수 사연	소원 내용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최근 실직한 한부모 가정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한 근사한 외식
ADHD 장애가 있는 동생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한부모 가정 여중생	애완동물 토끼
심한 뇌병변장애가 있는 동생으로 인해 한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는 중학생	가족들과의 여행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한부모 가정 자녀	동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책상
자녀 4명 양육 중인 한부모	4남매를 위한 옷과 신발
동생이 근육병으로 심한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중학생 누나	장애 동생을 위한 생일선물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모자 가정	운전면허 취득
자녀가 심한 뇌병변 장애가 있어 병원치료와 재활치료 중인 모자 가정	딸의 언어치료를 위한 치료비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자 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국기원 승품 심사비

심사에 참여한 한 위원은 “**각양각색의 사연에 모든 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 이번처럼 어려운 심사는 처음이었다.” 했고, 마산동장은 “이번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작으나마 소원이 성취되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분들도 향후 계획을 통하여 소원 성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함.

또한 소원성취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 **20가구에 中 소감문과 인증사진**을 받아 2차 심사를 통해 **5가구에 성공 축하금**도 지원함.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자 **2022년 소원을 말해봐 2탄**을 준비 계획중에 있으며, **제5기('23~'26) 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소원을 말해봐 사업 확대”**에도 반영함으로써 김포시 시민 전체가 소원성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함.

○ **향후 계획**

- 2022년 마산동협의체 “소원을 말해봐” 사업(9월~11월) 마산동협의체 주관
- 2023년 ~ 26년 소원을 말해봐 확대사업“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 추진 예정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사 진



‘소원을 말해봐’ 마산동 지역특화사업

소원 성취 소감문(아이들과 함께 외식하기)



‘귀하의 사연이 선정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바로 우리 가족 채팅방에 기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아이들과 넷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아주 어렵게 정하고, 드디어 고대하던 소고기를 싹껏 먹기 위해 수입 소고기 전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 15년 전쯤 우리 가족은 강원도 횡성에 여행 갔다가 횡성 한우마을에서 소고기를 맛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 그 횡성 한우 고기 맛이 마치 아이스크림 같이 사르르 녹는 듯한 잊지 못할 고기 맛이었던데서,



‘소원을 말해봐’ 소원성취 소감문

소원 성취 소감문(아이들과 함께 외식하기)



그날을 늘 그리워하며 횡성 한우 같은 소고기를 늘 먹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닥친 파란만장한 우리 가족들의 삶은 롤러코스터를 몇 번이나 타고 내려온 듯한 시간이 지나면서 1이분에 3만원 이상 하는 한우는 커녕, 세 끼 밥만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부모의 사설 실패, 이혼 등의 큰 일들을 겪으며 사춘기 시절을 겪는 아이들에게 큰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린 늘 위로해주며 응원과 격려로 소리 없이 그 시간과 담담히 싸워 이기고 있었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소원성취 소감문

소원 성취 소감문(아이들과 함께 외식하기)



온 가족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기도하면 반드시 어둠의 긴 터널을 벗어나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돈에 부담 없이 소고기를 싹껏 먹어보고 싶다는 우리 아이들의 작은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우 대신 호주산이었지만 아이들이 푹푹 흡입하는 모습을 보니 입이 딱 벌어졌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소원을 말해봐”라고 물어신다면 아이들이 이 소중한 선물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받은 사랑을 값없이 전하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최우수상

◎ 광주시

◎ 파주시 문산읍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올포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 역	광주시
사 례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포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례기간 (2022.4. ~ 202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4. 올포원주거환경개선 사업 TF 구성 ○ 2022.5. 읍면동협의체를 통한 대상자 발굴 ○ 2022.6. 읍면동 네트워크 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심의(6가구 선정) 2022.7. 올포원 TF팀 솔루션 회의를 통한 지원 방향, 범위, 지원 방법 결정 2022.8. 전기. 집수리. 주방 전문가 동행 전문가 진단 솔루션 및 집중 상담 2022.9. 쌍령동. 오포읍. 초월읍 3가구 집수리 완료
사 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포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22년 3월~ 2022년 11월 ○ 사업내용 : 읍면동 협의체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광주 시청 주택정책과 및 읍면동협의체, 봉사단체,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주방. 도배. 전기. 지붕 등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에 맞추어 주거 환경 개선사업 실시 ○ 사업대상 :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가정 등 ○ 추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 소득 75% 이하 (최소 기준) ● 관내 기초연금대상자 중 65세 노인 중장래인 가정 ● 관내 차상위 계층 대상자 중 12세 미만 아동 가정 등 ○ 사 업 비 : 30,000천원 ○ 예 산 : 경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 올포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협의체를 통해 주거개선사업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및 읍면동 위원장 네트워크를 통한 심의 ○ 지보체 나이스키친 사업, 광주시 주택정책과 G하우징 사업,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과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복지 자원 연계 ○ 단발성 집수리 사업이 아닌 대상자 상황과 욕구 맞게 꼭 필요한 주방. 지붕. 전기. 장판. 욕실 등 종합적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광주시와 읍면동 협의체,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진행

- 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환경 분과 특화사업으로 올포원주거환경사업 완료후 방역. 청소 매달 대상자 집 방문 사후 관리 진행
- 주거개선사업 진행 시 대상자가 원할 경우 집수리 기간 동안 종합건강검진 or 힐링여행 추진

○ **올포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배경**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1년 주거 환경 사업에 있어 꼭 필요하지만 지원 순위에서 밀리는 주방개선이 필요한 취약 계층 가구 중 주방높이가 맞지 않아 사용이 힘든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한 주방개선 사업 “나이스키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읍면동협의체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주방이 노후되어 불편함을 겪는 독거노인 가정이나 싱크대 높이가 맞지 않은 장애인 가구에 맞춤형 주방을 설치했습니다.(2021년 4가구 나이스키친 사업 진행)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있어 꼭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는 싱크대교체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이스키친 사업을 진행하면서대상자 가구에 주방 뿐만 아니라 도배. 장판. 지붕.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 타기관이나 집수리 사업이 있는 기관에 연계하려했지만 대상자 지원범위, 예산, 지역 등 각 기관, 단체 간의 지원 기준과 예산 등의 문제로 연계가 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컸고 주방 개선 사업을 진행 할 때 마다 다른 열악한 환경이 보여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주방환경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대상자 집에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던 중,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집수리 사업을 하는 관내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단체들도 예산, 지원범위 등의 문제로 지원이 한정돼 있어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자원 연계를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집수리 사업을 하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들로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 계층 가구를 선별하여 주방, 지붕, 전기, 장판, 도배 등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올포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올포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을 위한 도배, 장판, 지붕, 사례관리, 방역 청소 등 사업을 진행하는 5개 유관기관 및 광주시청 복지정책과담당자가 참석하여 「올포원 주거환경개선사업」1차 TF회의를 진행하였고 각 기관별 대상 지원 범위, 예산 등을 의논하며 기타 협력 단체에 참여 요청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 읍면동 협의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읍면동 위원장 네트워크 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선정된 대상자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솔루션 회의를 통해 지원 기관, 지원 범위, 예산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
례
내
용



사
례
내
용



<2022.05 읍면동네트워크위원회 대상자 선정회의>



<2022.06 올포원 TF 솔루션 회의>

2022년 5월 광주시 13개 읍면동협의체를 통해 대상자 발굴을 요청하였고 2022년 6월 읍면동위원장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네트워크위원회 심의를 통해 13개 읍면동 중 6가구 선정)

2022년 7월 올포원 주거환경개선사업 TF팀 솔루션 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지원 가능 기관, 예산 범위, 공사기관, 지원범위 등 종합적인 주거개선사업을위한 종합 솔루션을 진행하였고 1차 올포원 TF팀에서 더욱 확대하여광주시전기공사협의회, 광주시라이온스클럽, SPD 하우징, 광주시 주택정책과 등다양한 분야의 봉사단체와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집수리 및 주거상향 사업 등 시기, 장소, 예산 등 자세한 사항을 결정했고 결정된 사항과 올포원TF를 통한다양한 복지 자원을 토대로 본격적인 올포원주거환경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22.08 올포원 주거환경 대상자 가정 전문가 솔루션>

2022년 8월 전기, 주방, 집수리 전문가와 동행하여 올포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된 6가구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집수리 기간, 견적공사 순서 등을 결정하였고, 대상자들과 집수리 상담을 통해 집수리 기간 동안 공사로 인해서 주거가 힘든 경우 힐링 여행을 보내드리거나 건강검진을 추진예정이며, (대상자가 원할 시) 대상자가 원하지 않은경우라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연계를 해 각 마을회관에서 공사기간 동안 잠시 생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사
례
내
용

2022년 9월 현재 올포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6가정 중 1가정은 광주시주택정책과 주거상향지원 사업으로 연계하여 집수리 보다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사를 추진하였고(퇴촌면 대상자) 오포읍. 쌍령동. 초월읍 대상자 3가정은 집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대상자들도 10월까지 집수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포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후관리는 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환경분과에서 실무분과 특화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완료 후 청소. 방역 사업을진행하기로 하였고 사례관리를 위해 주거환경 분과 위원들이 조를 나눠방문하기로 했으며, 각 대상자가 속해 있는 읍면동협의체에서 위원들이 방문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올포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ALL for one “하나를 위한 모두” 라는 의미로 예산. 대상 지원 범위 등의 이유로 지원이 힘들었던 담당 부서, 관내 기관. 봉사단체 등의 MOU와 TF를 통해 연계. 협업하여 다양한 집수리 및 주거 관련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대상자 중심 광주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입니다.

사
진



<오포읍 올포원 대상자 집수리 완료>



<초월읍 올포원 대상자 집수리 완료>



어서와! 문산은 처음이지 문안 여쭙는 행복e음마을협의체

지 역	파주시 문산읍
사 례 기 간	2022. 4. ~ 2022. 11.
사 례 내 용	<p>○ 문산의, 문산에 의한, 문산을 위한 : 문산 고민하기! 문산읍은 외국인 1천명이 조금 넘게 거주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특성상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비율이 많다. 이에 2021년 제3기 문산읍 행복 e음마을협의체는 이러한 마을 특성에 맞는 복지제도를 선정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마을복지사업을 계획하였다. 2022년에는 제3기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어 계획한 사업이 실행되지 못 할뻔 하였지만, 제4기 협의체 위원들도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어서와! 문산은 처음이지 문여행" 사업을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특화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p> <p>○ 문여행을 떠나요! 제4기 문산읍 행복e음마을협의체는 문여행 사업대상자를 10명으로 계획 사례내용 하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 식재료를 지원하고 한국음식을 소개하는 가정방문 (2주 1회), 김장담그기, 활동공유회를 기획했다. 대상자 모집을 위해 지역주민, 마을 이장단협의회, 한국다문화복지협회, 파주시 가족 센터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대상자와의 만남을 기다렸다. 참여를 원하는 많은 대상자 가구의 연락이 왔으나 협의체 위원의 정기 가정 방문이 가능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한 7가구가 최종 선정되었다. 그렇게 4월, 2인 1조가 된 협의체 위원들과 다문화 가구 대상자가 매칭되어 문여행을 떠나게 되었다.</p> <p>○ 대상자 7가구와의 첫 만남!</p> <p>① 전○민님은 15살의 나이 차로 한국인 남편과 2011년 결혼하여 2016년 자녀 김○현을 낳았다. 행복한 한국 생활만을 꿈꿨지만, 자녀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갈등은 시작되었다. 장애 자녀 양육, 문화적 차이, 경제적어려움 등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아 2020년 협의이혼을 하였다. 그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생활비를 지원 받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 현재 6살이 되었다. 베트남 국적에서 한국으로 귀화하고 한국어도 능숙해졌지만, 여전히 한국 생활은 어렵고 우울한 나날이 이어져 삶이 힘든 가구였다.</p> <p>② 응○○○전님은 한국 남편을 만나 2020년 혼인 후 올해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지만,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여 25살의 나이에 집에서만 지내며 누가 찾아와도 겁이나 문조차 열지 못하는 가구였다.</p>

- ③ 샷○판님은 타 읍면동에서 문산읍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첫째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다. 그전에는 다문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이사를 오고 나선 참여할 기회가 적어 아쉬워했다.
- ④ 웬○○님은 남편의 적극적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고, 집에서는 어린 두 자녀 양육과 베트남 가족들의 영상통화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다.
- ⑤ 후○○항님은 귀화 준비를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하며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막막함을 갖고 있었다.
- ⑥ 이○현님은 코로나19 상황 전에는 본국어인 베트남어뿐 아니라 한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어 통·번역 일을 하며 관광 분야에서 일했으나 실업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 ⑦ 관○님은 신장장애로 매주 3일 병원을 정기 방문하며 가족들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 한국 생활을 오래 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뿐이었다.

○ 문여행의 참맛!

다문화 7가구에 4월부터 2주 1회 수요일마다 17회의 정기 가정방문 활동이 본격 시작되었다. 협의체 위원들은 다문화 가구에 소개할 한국 음식을 정하고 식재료 구입을 위한 장보기가 시작되었다. 또한 대상자들이 음식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해를 돕기 위한 조리법을 한국어 뿐 아니라 베트남어,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했다. 간장불고기, 제육볶음, 달걀찜, 잔멸치 아몬드볶음, 감자채볶음, 오이냉국, 삼계탕, 미역국, 수박화채, 훈제오리 무쌈말이, 송편 등의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고 접하며 한국 식생활과 전통음식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했다.

그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파주시가족센터 다문화 프로그램, 일자리 구직 정보, 복지서비스 등을 알려주어 대상자들이 궁금했고 어려웠던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좋아했다.

○ 관심 속에 한발 더 나아가기!

전○민님은 현재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충당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용기내지 못하고 있었다.

전○민님을 각별히 생각하던 박○숙 위원은 파주시평생학습관을 소개했다. 전○민의 평소 관심사인 미용 분야와 관련해 자격증반을 소개해주고 혼자서 하기 힘든 온라인 수강 등록에 도움을 주었다. 당시 본국의 남동생 병원비로 생활비가 부족했던 전○민님은 약 30만원의 재료비도 부담을 느꼈다. 이에 박○숙 위원은 맞춤형복지팀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상황을 확인한 맞춤형 복지팀도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을 결정했다.



사
례
내
용

○ **김장을 담그며 긴장을 풀어요!**

막바지로 접어든 문여행 활동은 11월 중순 다함께 모여 김장을 담그기로 했다. 한국 식생활에 빠질 수 없는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김장을 함께 담그고 나누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다. 활동 대상자와 협의체 위원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아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나누고 헤쳐 나갔던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그 후 11월 말 활동공유회를 개최하여 8개월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소중한 이웃으로 인연을 이어가고자 한다.

사
진



문여행 활동 협의체 위원



식재료 장보기와 배분 활동



식재료 지원 가정방문 활동



식재료 지원 가정방문 활동



대상자 자녀 백일잔치



대상자가 만들어본 삼계탕

우수상

◎ 부천시

◎ 구리시 교문1동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통해 부천시의 지역복지 공동체를 꿈꾸다

지역	부천시
사례기간	2022. 1. ~ 2022. 9.
사 례 내 용	<p>○ 함께 고민하다 왜 마을복지계획인가?</p> <p>부천시는 행정복지센터의 기능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9년 7월 1일자로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10개 광역동 중심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역동 통합 이후 곧바로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는 동 협의체 위원 간 교류 부족과 공동 활동 축소로 인해 주민들의 공동체 인식을 위축되게 만들었고,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2020년~2021년까지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과거의 복지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 2022년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고민하던 끝에 그동안 시범적으로만 진행해오던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진행된 부천시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p> <p>이를 위해 협의체 사무국에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의 마을복지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담당하는 지역 복지팀이 협력하여 각 동별 마을복지계획 수립 현황을 분석하고 올해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10개 동의 참여를 이끌고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4개 동에서 참여하기로 하였다.</p> <p>○ 마을복지계획 수립의 시작 - 동 담당자를 만나다.</p> <p>먼저 마을복지계획 수립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동 담당자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복지 아젠다 발굴·추진을 위한 실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p> <p>이후 컨설팅을 희망한 4개 동의 실무자 사전 간담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 동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p> <p>○ 마을복지계획 수립의 주체 - 주민이 중심이 되다</p> <p>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동, 협의체, 자생단체, 복지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먼저 동에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를 통해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을 모집하고, 동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의 복지기관은 실천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해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p>

4회기 동별 컨설팅 과정을 통해 지역의 현황과 기존 사업을 분석하며 우리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논의함으로써 주민이 우리동의 복지 의제를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드디어 실천! 주민주도의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다.

컨설팅을 통해 각 동에서는 함께 돌볼 이웃을 찾고, 그 이웃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였다. 그간 어르신 대상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면 각 동 현황 분석을 통해 장애인, 중장년, 한부모, 조손가구 등도 우리가 함께 돌볼 이웃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대안들도 제안되었다. 단순 물품전달로만 그치던 사업들이 지속가능하고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각 동만의 마을복지 계획이 탄생한 것이다.

아직 각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결정한 의제들을 차기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4개 동 담당자들은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의제 발굴을 위한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지 않았을까 기대된다.

사 례 내 용

구분	부천동	성곡동	심곡동	오정동
함께 돌볼 이웃	-저소득 아동 -장애인	- 중장년 1인가구 - 장애인 - 한부모, 조손가구	- 독거어르신 - 중장년 1인가구	- 중장년 1인가구 - 독거노인
마을 복지 계획 수립 결과	■ 사업 1 부천동 키즈카페 ■ 사업 2 부천동 애들이놀자~! ■ 사업 3 장애가정 요리활동 ■ 사업 4 장애인을 돕는 시민 봉사단	■ 사업 1 중장년 정서지원 ■ 사업 2 장애인+가족일일캠프 ■ 사업 3 한부모조손가정 멘토링	■ 사업 1 심곡이와 함께해요 ■ 사업 2 중장년 이웃 만들기 ■ 사업 3 발래한잔 하실래요? ■ 사업 4 맛보고 즐기고	■ 사업 1 중장년 1인가구와 함께 살기 ■ 사업 2 사별 독거노인 사후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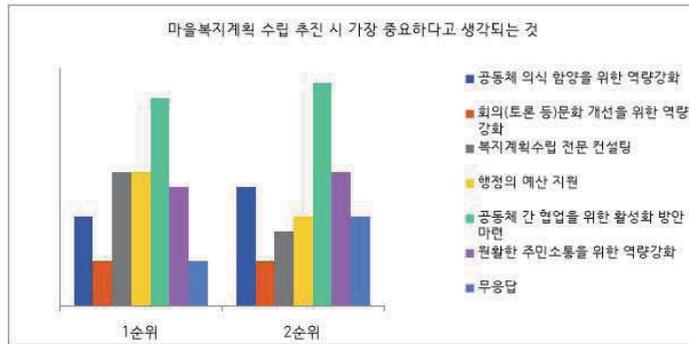
사
례
내
용

●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다!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96%가 컨설팅 참여로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고 답하였으며, 변화의 내용으로 주민참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61%), 우리마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21%), 우리마을복지문제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10%)고 답하여, 주민주도의 마을복지계획 수립과정 참여를 통해 동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마을복지계획 수립 추진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1,2순위가 '공동체 간 협업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라고 답변한 결과를 볼 때, 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 등을 통해 자생단체, 복지기관 등 공동체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행정의 각 부서간의 협력과 복지기관의 참여, 동 협의체 중심의 마을 복지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었으며, 그 중심에 부천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공동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된다.

● 앞으로 우리는...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 등을 통해 우리는 다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마을공동체 회복과 이를 통한 사회보장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인식된 만큼 부천시-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다.

사 진



사전 간담회



동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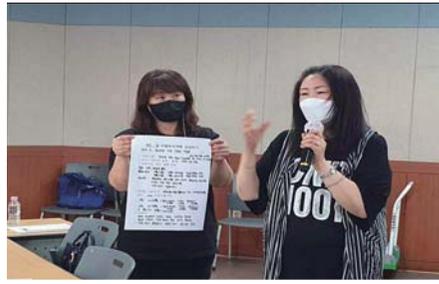
마을복지계획 추진단 사전 교육



동별 컨설팅 1



동별 컨설팅 2



동별 컨설팅 3



극적인 안부 - 오늘이라 천만다행

지 역	구리시 교문1동
사 례 기 간	2022. 3. 17. ~ 현재
사 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강00(52.6.10.), 미혼 남성 ○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 “1통 통장인데요, 며칠째 안보이고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몸이 좋지 않았대네요. 집주인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수화기를 놓자마자 황급히 현장으로 나갔다. ○ ‘별일 없어야 할텐데...’ 마음 속으로 기도하며 집주인에게 혹 방 밖으로 이상한 냄새가 새 나오지는 않느냐고 핸드폰으로 재차 확인하며 이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여 통장님과 집주인을 만나 “세입자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문은 잠겨 있고, 인기척도 없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과 “2일전 강00씨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119에 연락했으나 그때도 몹시 몸이 심각해 보였는데 강00씨가 응급실에 가지 않겠다고 하며 이송을 거부하고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병원에 가겠다고 고집하여 119도 강제 이송은불가하다며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 더 걱정이 돼요.” 라는 근심 섞인 말을 들었다. ○ 강00씨는 과거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로 지원받던 중 2015년 차상위 자활 대상자로 변경되어 생활하다 60개월이 지나 자활사업 참여 기간 만료로 2021.9.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 집은 구옥으로 마당에서 들어가는 미닫이 쇠문이 달린 집이다. 잠겨있는 문을 연속으로 몇 번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외치듯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었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불안감이 밀려들었다.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점점 다급해지는 심정이 더욱 불안해져서 현장에서 경찰과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결국 집주인 동의로 경찰 입회하에 구급대원이 문을 강제 개방했다. ○ 아수라장으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가득한 집안에 여기저기 인적을 찾아보니 구석진 침대 위에 강00씨가 마치 지푸라기처럼 쓰러져 있었고 몸에 온기가 있는 것을 보니 아직 목숨은 살아있는 듯 했다. 문 두들기는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혼수상태로 발견되었다. 살아있는지 의심될 만큼 혈색이 없이 앙상한 뼈와 가죽만 남아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것이다. 그냥 보기에는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겨우 흔들여 깨우니 숨이 차고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기력이 전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강00씨는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만 마셨다고 했다. ‘오늘 우리가 안왔으면 어쩔 뻔 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사
례
내
용

- 119 구급 대원이 응급실로 이송하며 병원비에 대해 문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어려운 경우 동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알려드렸고, 본인에게도 안내하고 동생에게도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몇 가지 상황을 물어본 후 긴급지원을 직권 신청하였다.
- 강00씨는 쇠약한 몸에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고, 연로하여 근로 능력이 없고 미혼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로 주변에 도움 받을 가족이 없으며 거주지인 딸기원 지역이 재개발 지정되어 집주인의 집수리 의지가 없어 주거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조리 및 식사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다.
- 건강, 경제, 주거, 안전 등 복합적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시 지원 방법 및 재원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 협의체 위원들은 발견할 당시의 현장 사진을 보고 쓰레기가 가득한 집안 환경도 문제였지만, 대상자의 깊게 파인 눈과 마른 모습에 “살아있는 거 맞아요?” 라고 질문했다. 이웃의 신고로 죽을 수도 있었던 한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에 감격해하며 식사와 주거안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 도시락을 연계하고 거동이 가능하면 경로식당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였고, 정기적 안부확인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밑반찬 지원 또는 따르릉~ 똑!똑!똑!(간식을 들고 봉사자가 월2회 방문) 안부 확인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자활사업단 깔끄미 사업을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 퇴원 며칠 후 거동이 가능한 상태를 확인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월2회 밑반찬을 지원하고 집안 정리를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 난 후 깔끄미 사업단이 움직이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모든 지원은 본인의 역할이 있는 상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방법이 결정되었고 이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밑반찬을 만들고 포장해 놓은 것을 강00씨가 방문하여 가져가도록 하였다. 또한 사례관리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강00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통장넘과 집주인이 강00씨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 현재 강00씨는 건강도 회복됐고 수급자로 책정되어 생활고도 해결되었으나 쓰레기 더미가 걱정되어 ‘집 안 정리를 좀 하셨냐’고 슬며시 물어보면 곧 할거라는 대답과 함께 적극적인 안부를 함께했던 이들을 집안으로 들이지는 않았다. ㅎㅎ



사 례
내 용

-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한 동절기 하절기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우리 동은 지역주민들의 신고가 계속되어 주거래 열쇠공이 있으며 금액 할인도 받고 있다. 그러나 주로 며칠째 연락이 안 될 때 신고가 되기에 이미 늦은 경우가 다수고, 다행히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대로 잠가두고 나온 적도 있었다. 그럴 때 함께한 담당자 왈, “탐장님 혹시 우리가 못보고 나온 것은 아니겠지요?” 라고 말하기에, “그래서 여러 협의체 위원님과 같이 들어 갔잖아.” 라고 답하며 안도의 웃음을 지을 때도 있다.

‘우리가 나눠드리는 홍보지와 위기가구 발굴 사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알려주고 있고, 우리들의 수고가 세상을 위해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직원들만으로는 역부족으로 다 살필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쉽지 않기에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고 도움이 되도록 방법을 논의하며 결과에 대해 함께 기뻐하고 또 안타까와지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결국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고 책임을 나누어 마주 잡고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인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복지의 샘플로 지역사회를 꽃피우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급한 전화에 가슴이 덜컥하곤 하지만 이웃을 꽃처럼 생각하고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두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어려운 이웃의 행복 가능성을 찾아가는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 세상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교문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함께 주변을 살피고 있다.

사 진



대상자 집 강제 개방



개방 후 집 안 상황



응급실 입원 상황

장려상

- ◎ 파주시
- ◎ 용인시 원삼면
- ◎ 광명시 철산4동
- ◎ 과천시 부림동
- ◎ 수원시

아이들 미래를 꿈꾸다! 취약계층 학습지원사업 ‘꿈꾸는 다락방’

지역	파주시
사 례 기 간	2022. 3. ~ 현재
사 례 내 용	<p>● 사업배경 : 파주시,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width: 45%;"> <p>멀리선 등교수업.. 벌어진 학력 격차 어떻게 극복하나</p> <p>수도권 학교 부활이 앞까지 갈까 한데... "학력 격차 20% 이상... 2021년 부활을 전" "방학기간 동안 수업도 못 할 상황이다"</p>  <p>기사출처 : 한국일보 2020.8.25.자 기사</p> </div> <div style="width: 45%;"> <p>초중생 '학습격차' 더 커졌다...상·하위권 성적 비교해보</p> <p>초·중·고등학생 '학습 격차' 분석 결과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 "학습 격차" 차이도 커졌다. "학습 격차" 차이도 커졌다. "학습 격차" 차이도 커졌다.</p>  <p>기사출처 : 뉴스원코리아 2021.1.15.자 기사</p> </div> </div> <p>코로나 19로 인해 등교수업을 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제로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은 아이들의 학습 결손과 학력 저하 결과를 나타나게 했고, 아이들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불안, 우울, 짜증 등 부정적인 정서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나 취약계층 아이들의 경우 돌봄, 결식, 온라인 교육 환경, 심리정서, 학업 성취도 등 모든 측면에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취약계층의 아이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에 제대로 적응하기 힘든 가정형편, 이미 뒤쳐진 학업능력에 대한 적절한 지원 부족으로 학습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학습 및 정서 지원을 위한 개별 맞춤형 학습 멘토 프로그램 ‘꿈꾸는 다락방’을 기획하였고, 이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 아이들의 벌어진 학습격차를 줄이고자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김창환(2021)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과 회복을 위한 교육적 과제에 관한 연구</p>

사례
내용

○ 추진내용: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아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아이-가정-지역 사회의 민·관이 함께 노력하다.

파주시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일자리 정책 마켓 공모사업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 「꿈꾸는 다락방」이 선정되어 사업비 1억 5천 만원을 지원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파주시는 17개 읍면동맞춤형복지팀,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읍면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파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손을 잡고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 하였다.

파주시는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심각한 고용절벽 앞에 서 있는 학습지도 경험이 있거나 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교육 분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12명을 선발하여 일자리 제공의 기회와 전문적인 맞춤형 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17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부터 만5세~10세 아이들 중 학습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본 사업에 연계하도록 하였다.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선발된 12명 교육플래너들에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위해 먼저 「꿈꾸는 다락방」사업과 참여 아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형태, 아동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 아동 인권, 아동 안전관리, 아동 놀이지도 등 기본 소양 교육을 진행하였다. 오리엔테이션과 기본 소양 교육을 마친 교육플래너들에게는 4명~5명 아이들을 매칭하여, 아이의 각 가정으로 주2~3회 방문하여 부족한 학습에 대해 평가하고 이용가정 욕구에 따른 1대1 맞춤형 방문 학습을 지원하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한 가정의 경우 아동 상담 및 보호자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매월 진행되는 월례회의를 통해 교육 노하우, 상담 사례, 상담 기술, 사업 개선 방향, 건의 사항 등 「꿈꾸는 다락방」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진정성 있는 사업으로 나아가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상시 대상 아이들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학습 이외의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의 활발하고 원활히 소통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파주시의 단 한 명의 아이도 학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사
례
내
용



< 민·관협력 체계 >

○ **추진성과: 학습격차는 줄고, 기초학력은 쑥쑥!! 지역사회 안에서 학습 돌봄 체계 마련!**

첫째, 학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기초 학습 기회 제공 및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 기초학습지원, 온라인 수업 및 과제 지도 등 필요에 따른 개별 맞춤형 학습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교육 소외현상 및 학습격차를 해소할 수 있었다.

< 학습 능력 향상 사례 >

- 편**(초2): 영어 대문자도 완전하게 익히지 못한 상태였고 간단한 말하기(이름 말하기 등)도 불가능 했으나 꿈꾸는 다락방을 통해 소문자도 모두 익히고 간단한 단어를 암기하고 있다.
- 허**(7세): 한글 통글자, 자음, 모음, 낱글자 등 한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꿈꾸는 다락방을 통해 한글카드에 있는 낱말 대부분을 잘 읽게 되었다.
- 이**(6세): 학습 초기 자신과 가족의 이름 외 글자 대부분을 읽거나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으나, 꿈꾸는 다락방을 통해 받침 없는 기본적인 간단한 글자들은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 이**(5세): 글자와 숫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꿈꾸는 다락방을 통해 과일 종류의 단어 16개와 글자를 보고 읽을 수 있게 되었다.
- 황**(초3): 수학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에서 실수가 많이 보였으나, 꿈꾸는 다락방을 통해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에서 실수 없이 계산을 정확히 하였다.
- 이*(초1): 책을 읽을 때 띄어 읽기가 되지 않아 읽으면서 책에 대한 내용파악이 힘들었으나, 꿈꾸는 다락방을 통해 띄어 읽기가 가능해졌고 대부분의 책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학부모 인터뷰 사례>

- 황** 부모님: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는 한글을 알지 못할 때 이런 교육을 지원받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이가 한글을 많이 깨우치고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 유** 부모님: 무료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합니다. 우리 애가 첫수업에는 글씨를 엉망으로 썼던 반면에 수업을 진행할수록 쓰기 능력이 향상되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아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대상 아이들의 가정을 모니터링하며 소통체계를 지속하면서 학습·정서 이외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경우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학습 극대화 및 정서 안정을 위한 지역돌봄 체계를 마련하였다. 아이와 가정, 지역사회의 민·관(파주시복지정책과-읍면동맞춤형 복지팀-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파주시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등)이 연계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였다.

넷째, 경력 단절자들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이 단절된 교육 분야 능력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고용 창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 **향후계획: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는 도시! 파주시! 앞으로도 현재진행형!**

지역사회 기관들과 함께 최종 평가회를 진행 한 후 「꿈꾸는 다락방」사업의 향후 방향 및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여 추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며, 파주시 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사업내용을 담아 취약계층 아동의 기초학습 기회 제공과 함께 정서적 지지체계를 마련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안착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민과 관이 함께 노력 할 예정이다.



사 진



꿈꾸는 다락방 오리엔테이션



교육플래너 기본 소양 교육



1:1 맞춤형 학습 지원



1:1 맞춤형 학습 지원



월례회의



월례회의



중간보고회 및 중간평가회



꿈꾸는 다락방 보도자료

독거노인 빨래봉사 '효드림 빨래방'

지 역	용인시 원삼면
사 례 기 간	2019. 11. 3. ~ 현재
사 례 내 용	<p>○ 추진배경 원삼면은 인구 8,000명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20%이다. 원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던 중 한 어르신 댁을 방문했는데, 청결상태가 안좋은 이불 위에서 생활 하시는 것을 보고 어르신들은 스스로 빨래를 하기 힘들다는 것을 착안해 효드림 빨래방을 진행하게 되었다.</p> <p>○ 추진현황 세탁기와 건조기 1대씩 후원을 받고 원삼면 행정복지센터 1층 한쪽에 효드림 빨래방을 개설하였다. 1주일에 두 차례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홀몸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수거부터 세탁, 건조, 배달까지 협의체 위원들과, 원삼면 복지팀 직원들이 조를 짜서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홍보가 부족하여 위원들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이제는 많은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있다. 대상자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의 세탁기 1대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았는데 다른 기업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후원해 주어 여러 어르신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p> <p>원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잘 말린 이불을 가져다 드리면 할머니들께서 자식도 못해주는 걸 해준다면 손을 잡고 우시거나 우리가 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실 때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p> <p>○ 장애요인과 극복 낡은 이불은 세탁 후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는 이런 경우가 많아 당황했었는데 이제는 이럴경우를 대비해서 이불 후원을 받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이불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대상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이불을 전달한다. 또한 옷을 세탁할때는 다른 옷들과 섞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옷 안쪽에 미리 표시를 해두었다가 전달한다. 빨래방 공간이 협소하고, 겨울에는 결빙돼 운영하지 못할때도 있어 빨래방 공간을 확대하여 불편함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p>



사 례
내 용

○ 추진결과

효드림 빨래방을 진행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빨래 및 정리가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원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효드림 빨래방은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강원도 평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효드림 빨래방을 벤치마킹해 반올림 빨래방을 열기도 했다.

○ 향후계획

원삼면 복지팀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하여 좀더 많은 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효드림 빨래방 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효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랑드림 무료 옷나눔 바자회, 반찬 봉사, 집수리 봉사 등 다양한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 할 예정이다.

사 진



위기가웃 발굴 및 적극 개입

지 역	광명시 철산4동
사 례 기 간	2021. 12. 16. ~ 현재
사 례 내 용	<p>2021년 겨울, 22세 청년이 아버지를 간병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돌보기를 포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우리 시는 청년간병인 (영케어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가정이 발굴되었다.</p> <p>해당 가정은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2인 모자가정(이혼)이다. 모는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면증, 알코올의존 문제가 있으며 자살에 대한 충동이 높은 상황이며, 자녀는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재수하였고 22학년도 대학 진학 예정인데 합격한 대학에 납부할 예치금 30만원이 없어 입학이 취소될 상황이었다.</p> <p>이에 우리동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지원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다가 광명시 청년동에 복지 자원을 긴급하게 연계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회의를 진행하여 대상자 지원 결정 되었으며 예치금을 지원하였다. 이후 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납부하였고 현재까지 학교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p> <p>모는 배우자와 이혼 후 우울증과 불면증, 알코올 의존으로 21년 7월 경 음주 후 자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모는 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2021년 7~8월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하게 되었다.</p> <p>그 당시 자녀는 부 또는 일가 친척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집에서 지냈으며, 모는 정신과 입원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게 되었다. 모는 퇴원 이후에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도 증상 호전이 없고 자녀 몰래 음주를 하였으며 자살에 대한 충동까지 커져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였다.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의 개입으로 정신과 병원을 변경하여 모에게 맞는 약물을 찾기위해 노력 중이며, 자살예방센터 치료비 지원은 올해 예산 소진으로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 이다. 이에 철산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후원금으로 40만원을 지원해 정신과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p>

**사 례
내 용**

또한, 모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특성화사업 "건강 Up! 마음 Up!"에 참여하여 6주간 주1회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듣고, 철산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가정방문하여 안부확인을 하고 정서적 지지를 하며 영양식을 지원해 식생활에 도움도 드리고 있다.

향후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당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 및 정신건강, 자녀의 학교생활 유지 등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재개발 예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추후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돕고자 한다.

100년 만의 폭우 속에 피어나는 이웃의 정

지 역	과천시 중앙권역(부림동)
사 례 기 간	2022. 8. 9. ~ 현재
사 례 내 용	<p>2022.8.8. 118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수도권에 쏟아졌고, 과천시도 폭우를 피해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공무원들 대다수가 재난 비상 근무에 참여하게 되었고 밤새도록 순찰 및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다.</p> <p>다음날 뉴스에는 산사태 및 침수로 인하여 여러 피해상황이 발표되었고, 그중에서도 신림동 세 모녀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다. 과천시는 날이 밝자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부 및 피해 확인을 추진하였고 지하에 거주하는 하지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청장년 1인 가구인 이00님의 집이 침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p> <p>이00님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2만원을 내면서 거주하고 있어 우선 집주인에게 피해상황을 알리고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집주인은 서울에 따로 거주하고 있어 과천의 집을 살피지 않고 이00님의 집수리 요구를 거부하며 아예 이야기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p> <p>이00님은 비가 그친 후에도 화장실 및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하여 벽에 곰팡이가 슬고 악취로 인하여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구와 집기들이 물에 잠겨 정리가 필요했지만 다리가 불편하여 스스로 수해를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p> <p>이에 당장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이00님은 휠체어를 타고 거동이 불편하여 다른사람에게 해가 될까봐 시에서 마련한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에 지낼수가 없다 하여 부림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는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우체통 사업에 대상자를 의뢰 하였고, 권역 담당자와 시 담당자가 복지관의 통합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이00님의 모텔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지원하였으며, 향후 또 큰비가 올 경우 다시 집이 침수되는 것이 우려되어 아예 침수 피해가 없는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기존전세임대주택 수시 지원 신청을 연계하였다.</p> <p>또한 사회단체 등 민간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는데 부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십시일반 기금과 손을 모아 물에 젖은 살림살이들과 옷가지 등을 꺼내어 말려주고 도배 및 장판을 새로 해주어 이00님이 예정보다 빨리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 쉬실 수 있도록 하였다.</p>



**사 례
내 용**

부림동 부녀회 및 통장단에서는 수해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이00님이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없어 음식을 정성스레 만들어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하였으며 과천 구세군 교회에서는 햇반, 김, 과일 등 식료품을 후원 하여 이00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이00님은 현재 수해 이전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수해복구 이후에도 크고 작은 비가 내렸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생활하고 있다. 이00님은 경기도시공사의 기존 주택전세임대 수시지원이 선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선정된 이후에는 민관의 도움을 받아 집을 얻을 계획이다.



<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센터 직원들의 집정리 >

사 진



< 도배장판 후 정리 모습 >



< 민관 통합사례회의 >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지 역	수원시
사 례 기 간	2021. 12. 8. ~ 현재
사 례 내 용	<p>○ 대상자와의 첫 만남 이야기</p> <p>2021년 10월의 어느날.. 돌봐줄 가족도 없이 홀로 기초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는 고령의 독거노인이 치매가 의심되고 날이 갈수록 이상증상이 심해지면서 주변 이웃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임대인의 제보로 시작되었습니다.</p> <p>어르신은 심한 난청으로 대화 자체가 힘들었고 피해망상적 사고 및 타인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적대감 등으로 인해 집으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물을 뿌리거나 밀치려고 하는 등의 다소 거친 행동을 보여 대면 상담을 시작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p> <p>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많고 거부감이 심했던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서비스 제공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수시로 가정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약물 복용 및 식사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식사 해결에 필요한 주,부식품 등의 후원물품을 지원 등 관계 맺기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통해 어렵게 어르신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처음 마주하게 된 환경은 놀람과 충격이었습니다.</p> <p>2년 전 이사 이후 고장 난 보일러는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어서 난방이 되지 않았고 온수 사용도 할 수 없어 오랫동안 개인위생관리도 하지 않아 불결한 상태로 추위지기 시작한 날씨에 고령인 대상자의 건강이 염려되었습니다. 또한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해 화장실 이용에도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방안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있어서 악취도 심한 상태였습니다.</p> <p>○ 백지장도 맞들면 가벼워지겠죠?..</p> <p>치매로 인지 저하 및 이상 증상 악화에 따른 정신건강 관리 및 돌봄, 개인 위생관리를 비롯한 일상생활 유지, 주거환경개선이 주요 위기 상황으로 평가 되었고 무엇보다 최근 배회증상이 나타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있음에 따라 내부 논의를 통해 시급하게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p>

사
례
내
용

사례개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자 주변의 인적자원의 역할이 필요했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인했을 때 다행히도 인근에 열쇠집 사장님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움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추가 모니터링을 비롯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사례개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난방시설(보일러)**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다행히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심해져 가는 이상증상 관리를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필요한 상태였기에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기관과 함께 지원 계획을 세우고 설득하며 **병원 검사를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사 도중 소란을 피우며 검사를 거부하는 일이 몇 차례 반복적으로 있어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상자의 식사 지원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간헐적인 주, 부식품을 지원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의 식사 지원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안부 및 생활실태 점검 등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청소 및 방역, 임대주택 선정 시 이사 등) 시 적극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설득했으나 대상자의 거부로 보류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상자의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및 연계 가능한 자원을 연계하고 설득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심한 거부감과 임대인에 대한 의심과 불만이 더 커지고 있어서, 비공식 지지자원(임대인, 열쇠집 사장님)도 대상자를 돕는데 한계를 느끼는 등 사례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상자의 현재의 문제 상황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정신과전문의, 연계기관(경찰, 정신건강센터, 건강보험공단 등)과 임대인, 이웃 주민들과 의사소통하며 효과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 "솔루션 회의"**를 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심한 치매 증상으로 의심은 되나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았음으로 입원을 통한 진단 및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호된 환경을 만들어 일상생활을 안정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시설 입소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사
례
내
용

또한 변경된 계획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가족들의 역할(치료 설득 및 보호자 역할 수행)이 필요했으나 직계가족이 없던 대상자를 위해 타지역에 있는 조카에게 연락을 했고 생활실태(문제상황) 및 사례개입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해 줄 것을 특한 끝에 다행히도 동의하였고 사례관리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카가 타지역 거주 하고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직접 돌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여 병원 검사 및 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등 제한적인 역할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솔루션회의 및 조카와의 논의 이후 부단한 노력으로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 및 치료, 안전한 돌봄 체계 마련 등의 이유로 전문병원에 입원하였고 초기에는 적응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하는 등 안정적으로 적응해서 생활하였음. 현실적으로 고령의 대상자가 퇴원 이후 혼자 생활하기에는 제한이 많음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최근에 시설에 입소 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 입소 이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례관리 종결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고생 끝에 오는 기쁨

대상자의 심한 거부 등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과정에 에너지 소모도 많았고 개입의 어려움이 많았던 사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자를 지역사회에서의 관심으로 발굴하여 이웃과 연계기관,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노력 한 결과 어르신이 보호와 돌봄을 받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해 보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사
진







2023년

대 상

© 안양시 석수2동

'혼심(혼자가 아니라 안심)'을 다한 병원동행 지원사업

지 역	안양시 석수2동
사 례 기 간	2022. 10. ~ 현재
사 례 내 용	<p>○ 추진 배경</p> <p>1인가구는 우리나라의 대표가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실제로 석수2동 전체 가구의 30.8%(23년8월 현재)가 1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58%가 응급상황시 대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80.7%가 의료기관에 혼자 방문하는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2020. 한국1인가구 보고서) 이에 건강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1인가구 병원동행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p> <p>서울에서는 이미 병원동행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22년 10월 최초로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가 개소하면서 병원동행서비스의 첫걸음을 딛는 수준으로 1인가구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p> <p>경기도에서는 2023년부터 병원동행사업을 5개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병원동행 매니저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로 아직 시범단계입니다.</p> <p>○ 석수2동-석수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원봉사센터 협의 추진</p> <p>이에 우리는 예산은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안을 찾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와 사업취지를 공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p> <p>1인가구 병원동행 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석수2동, 석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양시자원봉사센터와 22년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고, 23년1월 병원동행지원에 관한 협약을 이뤘습니다.</p>

- 1인가구 병원동행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일 시 : 2023.1.18.(수)15:00
- 협약기관: 석수2동, 석수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자원봉사센터
- 협약기간: 2023년1월-12월(연장가능)
- 협약분야
 - ① (석수2동) 병원동행이 필요한 1인가구 발굴 및 자원봉사 연계등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병원동행이 필요한 1인가구 발굴 및 병원동행 자원봉사자 일비 및 교통비지원 등
 - ③ (자원봉사센터) 병원동행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등 이외, 자원봉사자 종합보험가입, 조끼 및 호루라기 등 지급

이는 동단위 최초로 자원봉사센터와 협약을 체결, 민간거버넌스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예산을 절감한 동단위 전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 “민관협력을 통해 위기의 1인가구를 지원하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가정방문을 하던 중 김0출씨라는 독거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0출씨는 2003년에 이혼 후 옥탑 월세방에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으로 아들 1명과 함께 지내고 있었으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혼자서 외로움을 버티지 못하고 매일 술로 하루를 보내시고 계신분입니다.

옥탑방에 방문했을 당시 세탁기, 냉장고 등이 없이 생활하고 있었고 신체상으로 치아가 불편하여 식사도 잘 못드시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외 쥐나는 증상, 어지러움, 복통, 기력저하 등을 호소하였으나 병원비 걱정과 혼자 병원에 방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꺼려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김씨의 상황을 듣고 병원동행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례회의를 진행, 병원동행 봉사자와 매칭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원동행지원원은 23. 5.~ 7.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원하였으며, 김0출씨의 건강한 치료를 위해 접수 등 행정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의사선생님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설명 등의 도움을 주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도왔습니다. 봉사자분의 자상한 도움 덕분에 지금은 봉사자분 없이 혼자서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으며, 매일 드시던 막걸리도 끊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려고 노력중이십니다. 병원동행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대상자를 병원까지 동행하는 물리적 지원 이외에 본인 스스로 자립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까지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 병원동행지원사업 지원실적

병원동행 지원사업은 22년10월부터 준비하여 23년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3년9월 현재 대상자 발굴을 위한 방문상담 등 126건, 대상자 선정 관련 사례회의 7회, 병원동행 서비스를 13회 실시하였습니다.



사
례
내
용

○ 기타 주요성과

현재 병원동행 서비스는 안양시 적극행정 과제로도 제출되었으며, 타동의 모범사례가 되어 자원봉사센터등으로 사업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석수2동에서만 시범사업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센터와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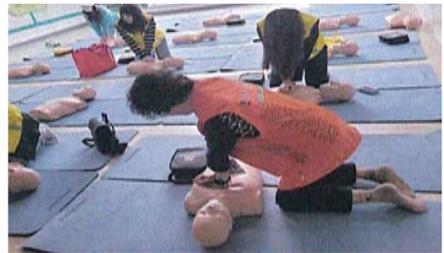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가 병원동행서비스를 통해 학습하여 현재는 병원을 혼자 갈수 있게 되는 등의 다양한 모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상자뿐아니라 봉사자들도 처음보는 사람과 병원을 동행하는것에 대해, 혹은 아픈사람과 함께 동행시 발생할 위험 등에 대한 불안을 표하였지만, 현재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로 발전하며, 대상자 모두 본 사업에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 향후 추진방향

이 사업은 자원발굴 및 민관이 협력하여 이뤄낸 사업으로 우리의 우수사례 및 행정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한 적극행정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석수2동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동과 협의체 그리고 지역기관들과 함께 연계, 협력하여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사
진



최우수상

◎ 안성시

◎ 광주시 오포1동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안성맞춤형 이웃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삶을 살다 '함께 더 삶'

지 역	안성시
사 례 기 간	2022. 9. ~ 2023. 7.
사 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사례 (발굴)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내 1인가구 비율중 안성시가 3위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비율 : 안성시 전체인구의 33.6%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서 자료) ○ 제도권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의 1인 가구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 대상 : 45세-64세의 중장년층의 경우 실제 고독사가 일어나는 가장 위험한 대상연령으로 정책적 제도권 제외 대상, 경제적 단절로 인한 사회적 관계 고립, 이로 인한 가정의 해체,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고립 발생 • 발굴 과정 :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45세-64세의 1인가구 중 행정복지센터의 경로로 접근이 되었으나 제도적 지원이 되지 못하고 지속적 방문이 필요한 가구를 15개 읍면동별 80여명을 추천받아 이웃살피미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살피는 방법을 통한 고독사에 대한 예방적 접근 시도 ○ 추진절차 1 (발굴 체계 시스템 구축 / 이웃이 이웃을 지속적으로 살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고립가구가 뭐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고립, 정보의 고립, 관계의 고립, 질병의 고립으로 인하여 제도권 외에 있어 제도권 지원서비스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위험군으로 정의 ○ 사회적 고립가구 판단도구(척도)를 기반한 대상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 당사자별 '사회적 고립가구 척도지'를 활용하여 0점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고립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규정하여 우선하여 접근 (4점인 경우 제외) ○ 주민조직화 발굴연계망 '이웃살피미구성 양성 (살피미 : 43명, 심화교육: 1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복지 실천의 중요한 동력체계인 읍면동협의체 위원중 발굴 역할을 할 위원을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지속적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이웃살피미' 주민조직화 조직으로 별도 구성하여 인식교육 및 이웃을 만나는 태도, 안부를 묻는 방법, 일지를 작성법 등 심화양성교육실시 ○ 지역 거점형 발굴 체계 구축 ('동네상점 이웃지킴이' : 60개소 / 1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숨어져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특징으로 지역내 생활 편의시설 상점인 편의점, 병원, 약국, 식당등을 통해 복지신청서와 안내서를 비치하여 발굴체계 구축

○ 추진절차 2 (지원네트워크 체계 시스템 구축)

- 다자간 업무협약식 (MOU)을 체결과 지속적 확장 (13개 기관→ 30개 기관단체)
 -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과 관련하여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 네트워크회의 및 솔루션회의 (솔루션회의 및 평가회의 : 6회)
 - 지역내 기관, 개인, 공공자원, 민간자원 연계 ·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연계과정에 필요자원과 필요에 따라 사례 전문기관, 사회보장기관에 연계 이관하여 대상 가구의 다 각적 접근

○ 추진성과 1 (사회적 고립가구의 긍정적 변화)

-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굴과 삶의 변화 (76건 접촉, 59가구 발굴)
 - 이웃살피미가 지속적 방문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당사자들의 어두운 표정이 밝게 바뀌기 시작하였고 '이웃살피미를 만나고 나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라는 표현과 '외롭지 않게 이웃살피미가 생동감 넘치는 좋은 기운을 계속 보면 좋을 것 같다', '이웃 살피미가 기다려진다' 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파악

(사례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중물)

김00씨는 과거 2회 자살시도력이 있으신 1인 중장년 가구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의 돌봄이 없는 위기가구로 자살시도중 발견이 되었다. 과거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사채를 사용, 그에 따른 압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지역내 기관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본 협의회 사업비 일부를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후 사례관리기관에서 경기 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자 지원을 통해 부채를 탕감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준 사회적 고립가구발굴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소중한 한 생명을 지키고 일상생활의 회복을 도왔다.

○ 추진성과 2 ('이웃살피미' 공동체 의식수준 향상)

- 이웃살피미 공동체의식수준 향상 (사전검사 4.2점 → 사후검사 4.32점, 돌봄활동895건)
 - 이웃살피미가 사회적 고립가구를 만나고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이웃돌봄활동을 펼친 횟수는 895건으로 지속적 방문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지역사회공동체 관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

○ 추진성과 3 (지원네트워크 기관의 다양한 참여와 사회적 책임성 인식)

-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굴과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사명감 100%, 행동 93.3%)
 - 지원네트워크에 참여한 30개 유관기관의 서비스연계활동 지원이 있었으며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다고 100% 응답하였고, 발굴과 지원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93.3%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지역 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인식을 통한 사회적 책임감을 확인



사
례
내
용



○ **향후계획 (시단위 사회보장정책 시스템 구축 필요)**

○ 공공영역의 참여와 민간영역의 지역주민으로 조직된 이웃살피미위원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당사자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향상 정도가 검증이 된 만큼, 발굴체계(인적안전망)와 지원체계가 한 시스템으로써 작동되도록 안성시 단위의 정책화의 기반이 되는 것이 중요하며, 주민의 조직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함에 있어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더불어 인센티브 적용 등 시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사
진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단 : 이웃살피미 조직화



대응체계 구축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 다자간 업무 협약식 MOU)



동별 컨설팅 1



발굴거부에 따른 단계적 접근 전략으로 복지안내서와 관계있기 물품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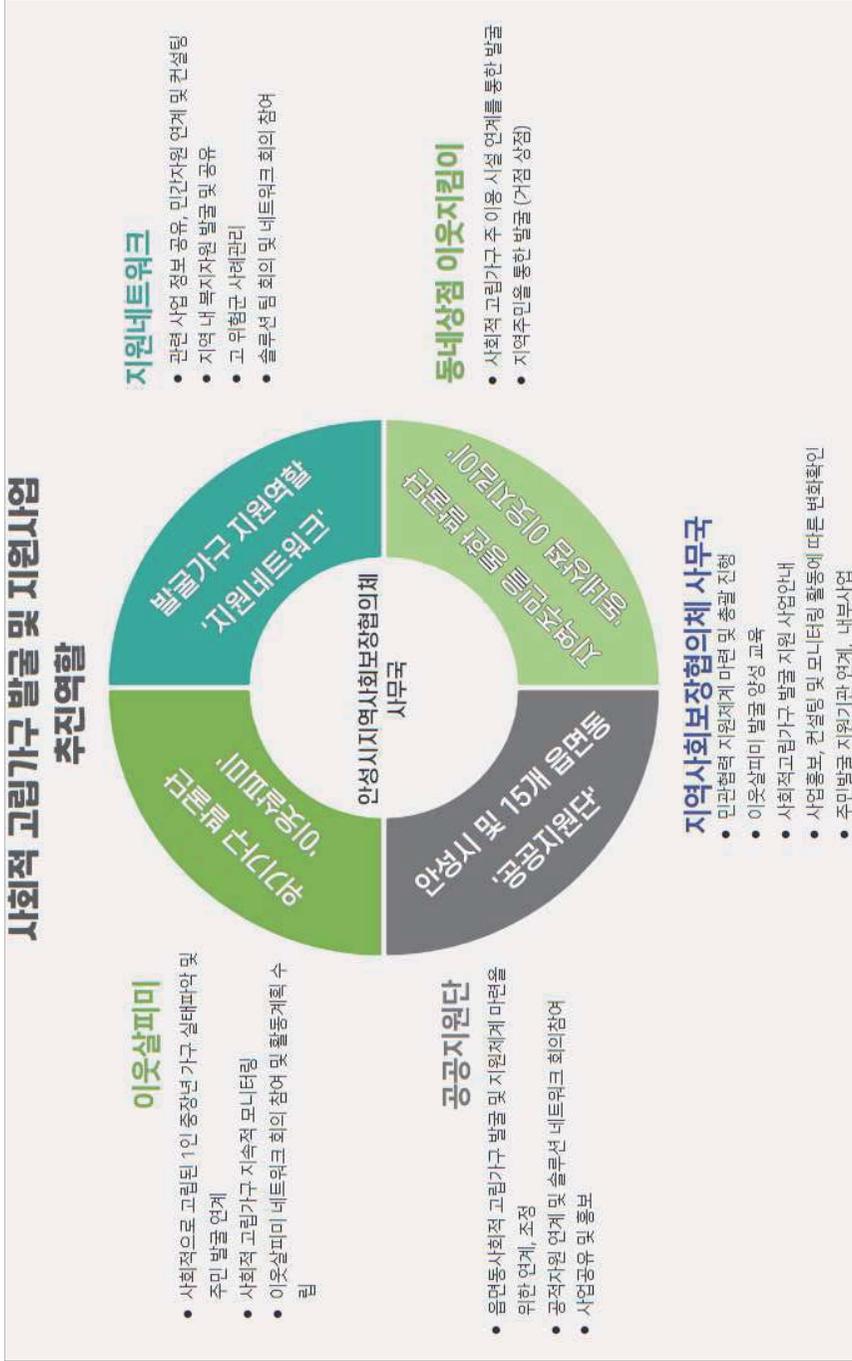


사회적 고립가구 당사자가 감사함을 담은 인터뷰 (안성시 소식지)



1차년도 사업결과 공유회

*참고자료





직접 찾아가서 채워드립니다! "칸칸가득 지원사업"

지역	광주시 오포1동
사례기간	2022. 9. 1.~ 2023. 8. 31.

사
례
내
용

● 사업개요

- 기간 : 2022.9.1. ~ 2023.8.31.
- 사업량 : 오포1동 취약계층 360명
- 주요내용 :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고가 심화됨에 따라 오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관내 MART와 상호협력하여 매달 안부확인 및 물품지원으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체계강화

● 세부추진결과

- 칸마트와 함께하는 「칸칸가득지원사업」
 - 기간: 2022.11.24. ~ 2023.8.31.
 - 지원대상 : 오포1동 취약계층 매월 30가구
 - 협력기관 : 칸마트, 오포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협약내용

칸칸가득지원사업

- ◆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및 관리
- ◆ 오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대상자 가정방문으로 안부확인 및 후원물품 직접배송, 복지사각지대 발굴
- ◆ 칸 MART : 매월 30가구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후원물품 기탁

●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구분	기탁식(물품후원)	정기적인 가정방문	복지서비스 연계
장소	칸마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 플래너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 김치 7kg, 대봉 ● 12월 : 동지팔죽, 굴 ● 1월 : 사골곰탕, 떡국떡 등 ● 2월 : 카스타드, 한라봉 ● 3월 : 연양갱, 한라봉 ● 4월 : 파이, 카라향 ● 5월 : 초코파이, 참외 ● 6월 : 모듬떡 세트 ● 7월 : 수막, 각티슈, 건과류 ● 8월 : 고급 연양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취약계층 30가구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물품지원 ● 소외된 빈곤가정에 찾아가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 ● 민간지원의 효율적 활용 및 마을복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수급신청자 총탈락자, 중저자가정방문(사후관리)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 대상자 위기징후 포착 되면 담당자 연계 —필요시 사례관리 대상자 등록 및 타기관 복지서비스 연계

사
례
내
용

○ 오포1동인생한컷'장수사진 촬영(칸칸가득 지원사업 동시 진행)

- 기간 : 2023. 6. 8.(목)
- 사업량 : 오포1동 취약계층 30가구
- 협력기관 : 필로칼리아 봉사단, 칸마트, 오포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업내용 : 사진촬영 재능기부, 헤어 및 메이크업 지원, 송영서비스

○ 「힘이난닭삼계탕 지원사업(칸칸가득 지원사업 동시 진행)

- 기간 : 2023. 7. 11.(화)
- 사업량 : 오포1동 취약계층 150가구
- 협력기관 :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오포남녀의용소방대, 칸마트, 자율방범연합대 오포지대, 오포중앙교회, 능평교회, 오포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업내용 : 민간단체들과 협업하여 초복맞이 영양삼계탕 지원으로 소외계층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송영서비스 지원 및 거동불편 대상자에게 포장음식 직접 전달

○ 향후계획

- 민관 연계,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대상자 지속 관리 및 지원 활성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및 지속적인 홍보 활동 실시

사
진



2022.11.24. 업무협약식 및 기탁식



22.12. 기탁식 및 후원물품 전달



23.1. 가정방문 및 후원물품 전달



23.2. 가정방문 및 후원물품 전달



사 진



23.3. 가정방문 및 후원물품 전달



23.4. 가정방문 및 후원물품 전달



23.5. 가정방문 및 후원물품 전달



23.5. 가정방문 및 후원물품 전달



23.6. 「인생 한컷」지원사업 및 칸칸가득 지원사업
동시추진



23.7. 「삼계탕 지원사업」 및 칸칸가득 지원사업
동시추진

우수상

◎ 오산시

◎ 용인시 포곡읍



고독 삶 예방을 위한 '웰에이징 인 오산 서포터즈' 양성사업

지 역	오산시
사 례 기 간	2023. 3. ~ 현재
사 례 내 용	<p>나는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경자다. 퇴직 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다 동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회의에 참가하고 주로 반찬 봉사를 하며 동협의체 활동이 나름 익숙해질 무렵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웰에이징 인 오산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홍보문을 보았다.</p> <p>'웰에이징 인 오산 서포터즈'는 <u>사람이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배우고 이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오산만큼은 고립 및 고독사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총 8회기의 교육</u>이다. 교육 전에는 8번이나 되는 교육을 어떻게 다 참여하지? 했지만 괜한 고민이었다. <u>스마음과 함께하는 힐링테라피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법 △인생 파노라마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교육</u> 등 회기별로 주제가 다양했고 진행이 유쾌해서 교육 내내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p> <p>서른 명의 교육생들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해야 아름다운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옆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p> <p>유품정리사 선생님의 고독사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고독사란 단순히 혼자 죽는 문제가 아닌 혼자 살아온 삶 자체가 슬픔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때마침 신문기사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p> <p>오산시! 날로 늘어나는 고독 삶 및 고독사 해소 방안을 고민하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326 1246 761 1651"> <p>1인 가구 증가에 깊어지는 '고립감'...고독사 계속 늘어날까</p> <p>6페이지 2022-12-14 14:00</p> <p>1인 가구 전년 7.9% 증가...2050년엔 10집 중 4집 '독거 가구' 고령화·코로나 블루·경제난, 고독사 무수할까 우려</p>  <p>연합뉴스 2022.12.14.</p> </div> <div data-bbox="775 1246 1214 1651"> <p>산시 '1인 가구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논의</p> <p>2023년 1월 22일 오산시 2층 2023.01.22 15:00 2023.01.22 15:00</p> <p>3독사 예방 '웰에이징 오산'사업 점검, 견제사항·노력우 공유 1인가구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 위해 추진</p>  <p>뉴스원코리아 2021.1.15.</p> </div> </div>

사
례
내
용

8회기의 교육을 마치고 시장님께 수료증을 받은 ‘웰 에이징 인 오산’ 서포터즈 30명은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 간담회에 참여하였다. 날로 늘어가는 고독사와 1인 가구 문제에 대한 간담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우리 서포터즈들은 8회기의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나의 행복을 외로운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추진내용 : 나의 행복을 전파하는 「웰에이징 인 오산 서포터즈 양성 사업」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추진!

전체 간담회와 동별 서포터즈 활동 간담회를 통해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발굴하여 교육을 통해 배운 삶의 버킷리스트 작성을 함께 해보고, 버킷리스트 중 서포터즈들이 이루어줄 수 있는 작은 소망을 함께 이루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오산희망톡(카카오톡 위기가구 스마트 발굴체계), 오산시 고독사 ZERO 연대, 동협의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홍보와 협조를 통해 외로운 이웃 8가정을 발굴하였으며 사례 관리 전문가 및 서포터즈들이 2인 1조가 되어 직접 이웃을 방문하였다.

처음에는 연락 자체를 꺼리던 이웃들도 한번, 두 번 만남을 이어가니 마음을 열고 대해주었다. 우리 이웃들이 소망카드에 어떤 내용을 적을지? 행여나 들어줄 수 없는 너무 큰 소원을 적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우리 이웃들은 행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서포터즈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 웰에이징 인 오산 서포터즈 주요 활동 사례 >

1) 남촌동 서포터즈 : 남촌동에 사시는 어르신 소망은 ‘이웃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는 거’였어요. 음식이 나오기도 전부터 즐겁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식사하는 것보다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크셨다는 것이 느껴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2) 중앙동 서포터즈 : 홀로 사시는 동수 어르신 소망은 “영화를 보는 것”이었어요. 영화 보는 내내 집중을 어찌나 잘하시던지 당신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행복해 하셨어요~

3) 신장동 서포터즈 : 귀여운 중학생 연희의 소망은 ‘초콜릿 만들기’였어요. 언니, 오빠, 동생 그리고 어린 조카들까지 한집에 살다 보니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집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초콜릿을 만들며 계속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솔직히 함께 참여한 저희가 더 즐거웠답니다.

4) 세마동 서포터즈 : 세마동 경로당에서 자주 보였던 어르신 소망은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었어요. 아드님과 남편분을 일찍 보내시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셨는데요, 함께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도 함께 마셨어요. 여러분~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거 우리가 흔히 하는 일이잖아요. 어르신이 커피를 드시면서 카페에 처음 와봤다고, 자신이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
례
내
용****향후계획 : 「웰에이징 인 오산 서포터즈」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동에서 봉사하면서 보람도 있었지만, 과연 나의 활동이 저분들이 원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우리의 기존 활동에 더해 웰에이징 인 오산 서포터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서포터즈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시협의체에서는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진정성 있는 사업으로 나아가도록 **내년 민관협력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을 약속하였다.**

앞으로도 ‘웰에이징 인 오산 서포터즈’의 작은 활동이 전파되어 오산시민 모두 잘 사는 행복한 오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사 진



▲ 교육진행 총 8회기



▲ 서포터즈 계획 간담회



▲ 고독사 예방 특강 진행 기사
(인천일보 2023. 6. 21.)



▲ 서포터즈 수료식 기사
(인천일보 2023. 6. 21.)



▲ 이웃 가정방문 & 소망카드 작성



▲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사례



▲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사례



▲ 서포터즈 활동 평가회



위기의 은둔형 (외톨이) 청년 발굴 사업 '용기 있는 도전에 희망을'

지역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사례기간	2023. 4. ~ 현재												
사 례 내 용	<p>○ 사업배경 : 주민이 관심 가지고 발굴하는 위기 이웃의 문제요인 해소!</p> <p>포곡읍 한 마을에서 마을의 환경(악취)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민의 신고를 통해서 주변을 조사하던 과정에 한 청년의 사연이 발굴되었다. 최근에는 청장년층의 고독사에 대한 비중이 50%를 넘을 정도로 사회적 이슈인 만큼 포곡읍 협의체에서는 이 문제를 마을의 위기 이웃 '은둔형외톨이 청년' 결정하고,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자살과 우울과 불안증으로 인한 범죄 등,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는 것도 마을의 주민과 또 위기 청년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여 진행하게 되었다.</p> <p>○ 추진현황 :</p> <p>① 포곡읍 마을 내 은둔형 청년 발굴</p> <p>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를 발굴하고자 행정 계시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 협의회 등 주민들에 의한 홍보활동을 통해 이른 바 은둔형 외톨이가 3가구가 발굴되었다. 이들은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집 안에만 있는 은둔형 사례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상황으로 부모, 가족, 주변 주민들의 권유가 우선 ● 위기 청년 대상자 3가구 발굴 이 중에서 위기도 상(上)(A)사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A)사례</th> </tr> </thead> <tbody> <tr> <td>연령 / 성별</td> <td>● 36세/남</td> </tr> <tr> <td>거주지</td> <td>● 포곡읍 ○○리 (2021년도 전입)</td> </tr> <tr> <td>직업</td> <td>● 무직(물류창고 일용직 중 허리부상)</td> </tr> <tr> <td>발굴계기</td> <td>● 주민신고(월세 체납에 의한 집주인 신고)</td> </tr> <tr> <td>기타</td> <td>● 중국에서 대학졸업 / 한국에 별도의 친구관계 없음 / 은둔형 기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움</td> </tr> </tbody> </table> <p>② (A)사례 : 관계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은둔형 고립과 주민에 의한 발굴</p> <p>(A)씨는 월세, 전기, 도시가스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가스 위기에 처해진 상황으로 집주인이 제보하여 발굴대상자로 결정되었다. 사례 개입을 위해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통신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전화도 불가하여 직접 방문하였고 집주인의 도움으로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거주지 환경도 위생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다. (우편함도 대상자와 부모 앞으로 발송된 각종 은행권 체납 독촉장이 수십개가 쌓여있었다.) 가족(A)씨는 월세, 전기, 도시가스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가스 위기에 처해진 상황으로 집주인이 제보하여 발굴대상자로 결정되었다. 사례 개입을 위해 연락을 취하려</p>	구분	(A)사례	연령 / 성별	● 36세/남	거주지	● 포곡읍 ○○리 (2021년도 전입)	직업	● 무직(물류창고 일용직 중 허리부상)	발굴계기	● 주민신고(월세 체납에 의한 집주인 신고)	기타	● 중국에서 대학졸업 / 한국에 별도의 친구관계 없음 / 은둔형 기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구분	(A)사례												
연령 / 성별	● 36세/남												
거주지	● 포곡읍 ○○리 (2021년도 전입)												
직업	● 무직(물류창고 일용직 중 허리부상)												
발굴계기	● 주민신고(월세 체납에 의한 집주인 신고)												
기타	● 중국에서 대학졸업 / 한국에 별도의 친구관계 없음 / 은둔형 기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했으나, 통신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전화도 불가하여 직접 방문하였고 집주인의 도움으로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거주지 환경도 위생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다. (우편함도 대상자와 부모 앞으로 발송된 각종 은행권 체납 독촉장이 수십개가 쌓여 있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함께 거주하던 부모님들께서 23년도 3월경 대상자와 큰 다툼 후사업차 중국으로 간 후 최근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관내에 결혼한 누나가 살고 있으나, 관계가 단절 된지 오래였다.

(A)씨의 거주지는 월세 체납으로 명도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 강제퇴거의 위험이 있으며 (A)씨는 퇴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시급한 상태로 진단하였다.

○ 장애요인 극복 :

포곡읍 협의체에서 이번 사업에 필요한 (A)씨의 관련 상담을 시도하는데 있어서 (A)씨의 비협조로 초반부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부족한 대상자는 기본적인 설문조사와 같은 대화형식에 참여하는것을 많이 힘들어하고 부적응 반응을 보여왔으며, 병원 검진을 앞두고도 본인의 의지가 사라지고, 본인의 의사 표현에 힘들어하며 방문을 기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였으나, 이 사업의 컨설팅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포곡읍 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며 현재 이사업이 본인에게 얼마나 필요하며,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시키고 대상자를 참여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 추진결과 : 영역별 개입 절차 진행

○ 거주지 청소 :

거주 동안이라도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으로 **2023년도 특화사업 '주거안정토탈케어 안전한 우리집' 사업**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거주지 내부 생활 쓰레기 및 적치된 폐기물 처리를 진행하였다.

○ 경제적 지원 :

과거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모아 두었던 돈으로 은둔하는 동안 배달음식을 시키며 소진하고 통장 잔고 7천원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근로가 없는데서 오는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3개월 간 '**긴급복지 생계비**'를 7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으로 연계하였으며, 7월 생계비가 입금되면서 전기 및 가스비에 대한 체납분을 모두 납부할 수 있었다.

○ 자립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

가족들과의 모든 단절로 인하여 관계 형성에 대한 필요성 느끼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로에 대한 의지도 줄어들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립에 대한 근로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공공근로)**'을 연계하여 근로 강도가 낮은 일자리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
례
내
용

○ 주거 및 건강 :

주거지에서는 이미 명도소송으로 인하여 별도의 철회 방법이 없는 상태로 이사를 해야하며,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교적 저렴한 'NH 전세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오랜 은둔형 생활로 인한 체중증가로 인하여 건강이 우려가 되는 상태로 은둔형 외톨이 체크리스트에서 28점으로 고위험군에 준하는 수준으로 나와, 건강검진이 시급한 상태임에 따라 포곡읍 협의체 위원이 운영하시는 병원에서 검진을 하였고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나, 우울증 증상이 다소 감지되는 상태였다.

○ 향후계획 :

8월에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으나, 차상위 신청과 자활근로를 통해 일자리 연계를 이어갈 계획이며, 사람들에게 대한 개방적 심리가 꾸준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케이스 상담을 사업관련 컨설팅 교수님께 의뢰하여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랜 시간 은둔형으로 지내온 대상자에게는 많은 시도와 변화들이 단번에 일어나기란 어려울 것이고 개입하는 포곡읍 협의체와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움이 따르고 있다. 어렵게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힘들게 문밖으로 나오고 있는 은둔형 청년(A)이 놀란 마음으로 다시 숨어버리지 않도록 오랜 지속성을 두고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함께 발굴된 (B)와 (C)의 청년 은둔형 2가구에 대해서는 천천히 접근하고 있다. (B)청년은 학교 선생님의 도움과 설득으로 참여 의사 결정으로 고민중에 있으며, (C)청년은 부모님들께 겨우 참여 승낙을 받고 다음 단계를 수립 중에 있다. 은둔형 청년이 사회로 돌아가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해내며 사회와 어우러져 살아간다면 이 사업의 최종목표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나,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때론 성공적인 사업결과가 아니더라도 협의체와 또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립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만의 위기의 고립을 함께 고민해주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사
진



(A)씨의 거주지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위원장과 (A)씨의 병원방문 상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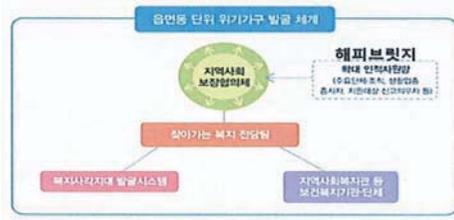
장려상

- ◎ 의정부시
- ◎ 동두천시 생연1동
- ◎ 안산시 원곡동
- ◎ 파주시 금촌2동
- ◎ 화성시 반월동



행복을 전하는 징검다리 의정부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피브릿지' 위촉 확대

지 역	의정부시
사 례 기 간	2022. 12. 1. ~ 2023. 8. 31.
사 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발굴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인적안전망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기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 강화하여 위기 이웃 발굴 업무 추진 필요성 증가 ○ (2022년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상반기 제2기 해피브릿지 위촉 이후, 위기이웃 발굴 업무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교육 등의 부재로 해피브릿지로 위촉된 위원들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으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업의 인지도가 낮아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낌. ○ 추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 관련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2. 12. 27.(화) 16:00~18:00 • 장소: 시청 인재양성교육장(신관 2층) • 대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복지사각지대발굴 담당 공무원 • 내용: 2023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확대·정비) 방안 논의 ○ 2기 해피브릿지(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대상자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기 해피브릿지(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대상자 정비 ○ 정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기 위촉 대상 1,047명 2023년 해피브릿지 활동 참여 의사 확인 • 4기 동협의체 및 통장협의회 임기 종료에 따른 미활동 인원 정비 • 5기 동협의체 및 통장협의회 신규 위원 해피브릿지 가입 독려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인적안전망 운영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인적안전망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하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확대 계획 추진함.



- 해피브릿지 집중 모집 기간 운영 * 2. 1.(수) ~ 3. 31.(금)
 - 참여기관: 市, 권역동 복지지원과 및 일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추진내용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추진 시, 해피브릿지 모집 및 홍보병행, 생활임대 중사자 집중 발굴
 - 시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한 의정부시민 전체 관심 유도
- 동 보건복지팀·해피브릿지 미팅데이 추진 * 1~8월(14개 동 상이)
 - 주요내용: 정기적으로 해피브릿지와 만나 서로 간 협업 체계 강화
 - 보건복지팀, 해피브릿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사업 소개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제보 방법 안내 및 제보 요청
- 해피브릿지 역량강화 교육 추진
 - 교육명: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대처방안 교육
 - 참석대상: 인적안전망(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94명

구 분	권역	교육일시	교육장소	참석인원(명)
1차	흥선, 호원	3. 8.(수) 15:00~17:00	흥선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	106
2차	송산, 신곡	3. 9.(목) 15:00~17:00	송산노인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	88

- 주요성과
 - 해피브릿지 위촉 인원 증가 ☞ '22년 12월 대비 34.7% 증가

(단위: 명)

2022년 12월	2023년 8월	비고
1,047	1,411	미활동자 118명 해촉



사
례
내
용

○ 해피브릿지 활동 활성화 환경 조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별 수행기관 방문 해피브릿지 홍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유공 시장 표창 수여(3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와 업무협약으로 생활업종 종사자 적극 발굴, 해피브릿지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게재 등 위기이웃 발굴 체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함.

○ 겨울철(22.11.~23.2.) 취약계층 지원 우수사례 시군 평가에 따른 도지사 포상 수상(시군 포상1, 공무원 포상 1, 민간인 포상2)

- 민간인 포상 호원2동지사협, 송산3동지사협 위원 수상

○ 향후 계획

○ 2023. 9. 9.(토) 민관협력 위기이웃 발굴 '복지뮤지엄' 행사 개최

- 시민 참여형 행사를 통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 복지 기관, 시민 모두가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해 활동하는 영웅임을 알리고, 공공·민간 협력 캠페인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기관 홍보

○ 2023. 11월 중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 추진

- 2023년 성과 공유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간 화합 도모

사
진



(A)씨의 거주지 생활쓰레기 처리



(A)씨의 거주지 생활쓰레기 처리



(A)씨의 거주지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위원장과 (A)씨의 병원방문 상담 모습

“쓰담쓰담 함께 격려하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생연1동 복지로(路)”

지 역	동두천시 생연1동
사 례 기 간	2022. 9. 1. ~ 2023. 8. 31.
사 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연1동 주민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관이 함께 인적 물적으로 함께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 사업을 바탕으로 공적 복지의 한계, 역할분담, 다양한 복지자원 지원, 복지갈때기 현상 해소 등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위기 이웃 대상자 발굴 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제목의 의미는 우리 마을 주민 참여와 협력으로 '행복 더함 복지 마을 만들기' 구현과 하나로 힘을 모으는 길과 소통의 통로를 의미하며, 생연1동 복지로를 통해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 협력을 통해 희망을 함께 느끼며 소통할 수 있는 복지 아이템 발굴 및 연계를 추진한다. ○ 생연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이웃 발굴지원 및 민관협력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연1동 "반짝반짝 보면서 들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목적 : 난청 독거노인 및 청각장애인 LED 초인종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통한 고독사 예방 ● 주요내용 : 난청 노인 노인 및 청각장애인 등 보면서 인식 가능 LED 초인종 설치 (로컬드림봉사회,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 주한미군한국인 봉사회 재능 기부 설치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수시 ● 저소득 난청 독거노인 및 청각장애인 ● 추진실적 : 총 17가구(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 ○ 소외계층 '가족만들기' 반려식물 전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목적 : 소외계층 우울감 및 외로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고독사와 자살예방 ● 주요내용 : 가정방문하여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취약계층의 안부 및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다수의 고독사 고위험군 고독사 예방 ● 사업기간 : 연중 계속 ● 지원대상 : 저소득 우울감이 있는 취약계층 ● 추진실적 : 60가구



사
례
내
용

○ '생연1동복지로' 카카오톡 채널 운영

- 목적: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한 SNS를 통한 신속한 복지제보 및 즉각적인 상담 진행
- 내용: 생연1동 카카오톡 채널 개설, 각종복지, 사업 홍보 및 위기가구 일대일 상담 진행
- 추진기간 : 연중 계속

○ '생명사랑 투게더' 자살 고위험군 대상 1:1 맞춤 서비스

- 추진목적: 자살 고위험군 대상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우울감 완화, 심리적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 내 지지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사고 감소, 자살 예방 도모
- 주요내용 : 자살 및 우울 완화를 위한 재가 프로그램 제공과 정서적 지지 및 지역사회 자원 정보제공 1:1 상담, 동두천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및 프로그램 물품 제공
- 사업기간: 2023년 2월 ~ 2023년 11월
- 지원대상: 관내 자살예방센터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으로 추천받은 대상자 10명
- 추진실적: 70가구 지원 (2023년 8월까지)

○ 생연1동 '병원동행 서비스' 특화사업

- 특화사업명 : '병원 동행 서비스'
- 주요내용 : 몸이 불편하여 혼자 이동하기 어렵거나 보호자의 부재로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대상 : 장애인 등 취약계층 6명
- 추진실적 : 78회 이상 지원(2023년 8월까지)

○ "쓰담쓰담 함께 보면서 이끌어주는 생연1동 복지로(路)" 민관 협력 지원 사례 (사례 발굴 배경)

사례대상: 김○○(76세)/독거노인가구/지체(하지절단) 심한장애인 결혼을 하지않아 슬하에 자녀는 없으며 부모는 모두 사망한 상태로 부양의무자가 없음. 4년전 경운기 머프럴쪽에 다리 화상을 입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상태악화되어 2022.11.3.부터 서울 도봉구 소재 한일병원에 입원하여 고사 부분 절개수술을 시행함. 11.16. 피부 이식 수술을 하려던 중 피부조직에 암이 확인되어 상급병원인 한양대학교병원으로 이진하여 현재 2주 간격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현재 항암 치료를 위한 통원치료 및 입퇴원 관련 한양대학병원 간병비 또는 의료비 본인 부담 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 지체(하지절단) 심한장애 및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임.

(연계·지원 참여과정 소개)

쪽방촌과 유사한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하루종일 움직이지도 못한채 홀로 누군가를 기다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림에 지쳐 눈물을 머금은 눈망울은 잊지 못할 기억속에 남아 있다. 뜨거운 한여름 더위에 지쳐 문을 활짝 열어 놓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에 생연1동행정복지센터와 민관협력을 맺은 로컬드림봉사 회장님은 생계보다 우선시 하며, 가족같이 때로는 아들같이 이분을 한결같이 잊지 않고 돌보고 계시는 중이다. 하지 절단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해 씻는 문제부터 혼자서 서서 이동하며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심각한 모습이시다. 특히 로컬드림봉사 회장님이 직접 이용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날에는 말없이 문을 열고 기다리는 모습도 눈에 선하다.

담당공무원이 방문할 때면 따뜻한 눈망울로 감사함을 표현하시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마움을 연신 소리를 내시며 표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임을 느낀다.

(연계·지원 및 참여 변화 과정)

생연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두천시자살예방센터는 업무협약을 맺어 김○○ 같은 자살 고위험군 대상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우울감 완화, 심리적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 내 지지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사고 감소, 자살예방을 도모하며, 동 협의체 위원들이 대상자가정 으로 방문하여 1:1 프로그램 및 상담을 진행하였다. 3월 우울 및 자살 척도 사전검사 시행 및 숙면을 통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4월에는 식물(표고버섯) 함께 키우기를 통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김○○의 심리안정을 살피드렸다. 표고버섯 식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시며 배우려는 모습을 통해 충분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5월 아로마 탈취제 만들기를 통한 심리안정, 6월 홈트(운동)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7월 천연 모기퇴치제를 함께 만들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김○○ 와 같은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우울 및 자살생각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고, 사회적 안전 그물망 형성 및 생명존중 인식을 함께 도모할 수 있었다. 김○○은 생연1동에서 추진중인 소외 계층 '행복한 가족 만들기' 반려식물을 직접 가정으로 맞춤형복지팀 사회복지공무원이 전달할 때 기다림에 지친 외로움을 어느정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많이 느끼면서 어르신을 찾아 되었다. 반려식물은 침체된 분위기를 싱그럽게 만들어 주고 더 나아가 삶의 동반자, 가족으로서 감정 교류도 가능하기에 외로움 등 부정적인 감정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생연1동 착한가게로서 후원해 주시는 그린화원 최○○ 대표와 직원들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반려식물을 후원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최○○ 대표는 "집안에서 예쁜 반려 식물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 난청 취약계층으로 가구 방문시 청각으로만 인식되는 초인종 소통 문제 해결이 절실히 필요해 보였다. '반짝반짝 보면서 들어요' 난청가구 LED 지원사업 대상으로 추천하여 민관협력기관인 로컬드림봉사회 후원 및 재능기부를 통해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LED 초인종을 설치해 드렸다.

사
례
내
용

로컬 드림봉사회 재능 기부 및 후원자이신 이○○ 회장님께서 “설치해 드리니 기분이 어떠세요? 앞으로 방안에 등이 반짝 반짝 거리면 누군가 찾아왔다는 신호로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면 손가락 동그라미 원 그려보세요” 그것도 못하시면 고개 끄덕여 보세요, 앞으로 반짝 반짝 보이면 꼭 문 열어주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셨다.

평소에 매우 무뚝뚝하며 본인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입 옆쪽이 아주 살짝 올라가는 미소를 띠시며 만족을 표현하고 계셨으며, 눈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읽고, 느낄 수 있었다. 2023년 공동모금회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직접 생연1동 사회복지공무원이 댁을 찾아가 동두천무궁화라이온스에서 후원해준 선풍기를 조립하여 전달하였더니 여러번 손짓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셨다. 또한 로컬 드림봉사회 후원 옥개장, 닭곰탕, 이불 및 생연1동 후원 김장김치, 행복나눔푸드상자 등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할 때마다 상호간에 행복과 보람을 함께 느끼게 해주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질때도 있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이 2022.11.15. 결정되었고, 항암치료에 따른 서울 소재 한양대학병원 내원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몸이 불편하여 혼자 이동하기 어렵고 김○○과 같은 보호자의 부재로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연1동에서는 로컬드림봉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병원동행서비스" 특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3년에는 2.10.(금), 3.9.(목), 3.13.(월), 3.22.(수), 5.9.(화), 5.15.(월), 5.22.(월), 5.30.(화), 6.1.(목), 6.13.(화), 6.20.(화), 7.3.(월), 7.7.(금), 7.10.(월), 7.12.(수), 7.14(금), 7.17.(월), 7.18.(화), 7.19.(수), 7.20.(목), 7.21.(금), 7.24.(월), 7.29.(토), 8.5.(토), 8.7.(월), 8.29.(화) 동두천에서 한양대학병원 동행서비스가 실제로 총 26회 진행되었다.

(참여과정 및 변화 극복의 모습)

왕복 최소 4시간 및 혈액 채취, 항암치료, 주치의 진료 상담 등 치료 대기시간 포함 총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여정이다. 기타 쌍문동 소재 한일병원 10회 이상, 의정부 을지대학 병원 5회, 동두천 소재 늘푸른정형외과 20회 이상, 이영길 내과 10회 이상, 로젠요양 병원 7회 2023년 기준으로 총 78회 이상 병원동행서비스를 진행하였다. 김○○의 한양대학교 병원동행서비스는 민간 봉사기관의 차량 및 인력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매일 같이 자녀처럼 동행하시는 로컬드림봉사회장님을 뵈는 한양대 원무과의 한 여직원은 병원에 오래 근무했지만 저렇게 자식도 못하는 일을 손수 챙겨가며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자가 차량으로 직접 김○○을 정성껏 댁에서부터 업어 태우시고 오시는 모습에 감동을 여러차례 받았다고 표현하셨다. “자식도 저렇게 못하는데 저렇게까지 봉사 하시며 도움을 주시는 모습에 머라 할말을 잊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간호사도 여럿 있었다. 한양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박○○ 교수는 “가족도 이렇게 못하는 일을 봉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게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정형외과 이○○ 교수도 “이 사연을 직접 보고 치료하면서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수차례 하셨다.

원곡동 다문화특구 -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를 위한 문화경제복지, 통합복지 실현

지 역	안산시 원곡동												
사 례 기 간	2022. 9. 1.~ 현재												
사 례 내 용	<p>○ 안산시 원곡동 인구현황 소개</p> <p style="text-align: right;">(2023. 7. 31. 기준)</p> <div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caption>원곡동 인구현황</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인구</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내국인</td> <td>5,768</td> <td>17%</td> </tr> <tr> <td>외국인</td> <td>13,915</td> <td>42%</td> </tr> <tr> <td>외국국적동포</td> <td>13,816</td> <td>41%</td> </tr> </tbody> </table> </div>	구분	인구	비율	내국인	5,768	17%	외국인	13,915	42%	외국국적동포	13,816	41%
	구분	인구	비율										
내국인	5,768	17%											
외국인	13,915	42%											
외국국적동포	13,816	41%											
<p>안산시 원곡동은 안산시 25개 동 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원곡동 인구 33,499명 중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27,731명(23년 7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비중이 83%을 차지하고 있어 다문화특구로 지정되어 있다.</p> <p>○ 원곡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복지사업 추진 배경</p> <p>○ 이주민과 선주민 간 화합 도모</p> <p>'제5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 자료집'에 의거 지역주민 욕구 조사결과, 안산 시민이 선주민과 이주민 상생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지역주민 욕구조사와 초점집단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에 더해 지역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연대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p>													

○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원곡동의 지역복지사업 제시**

다문화특구 지역인 원곡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원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와 경험을 기반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게 되었다. 매월 임원회의와 정기회의 등을 통해 각종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 전(全) 과정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하며 원활 하게 의사소통 하였다. 원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절반이상이 귀화 한 분들로, 그들이 먼저 안산시 원곡동에 정착하여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동특화사업을 실행하게 되었다.

○ **다함께 북(Book)돋움! (추진실적 :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총 3곳/ 월1회, 누적12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아동센터(1개소)와 어린이집(2개소)을 방문하여 월 1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다. 한국의 문화와 정서가 반영된 동화책을 한국어와 중국어 2개 국어로 읽어줘 상호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넓히고 있다. 협의체 위원들도 처음 한국 사회에 적응할 때 문화 격차를 경험하여, 이러한 사업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 외국인 아동, 다문화 아동이라고 여겨졌다. 이 사업은 아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동화책을 통해 한국에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며, 한국 정착에 성공한 인생 선배들이 직접 활동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사업이다.

○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원곡동의 지역복지사업 제시**

○ **원곡동 미리크리스마스 (추진실적: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총 3곳/ 총 3회)**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협의체 위원들이 과자꾸러미, 장갑, 목도리, 우산 등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여, 관내 아동에게 지역주민의 온정을 전달해 즐거운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사하였다.

○ **원곡동 신나는 미니올림픽 (추진실적: 다문화 및 관내아동 75명 참여, 1회)**

다문화 아동과 한국 아동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지역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명랑운동회 및 한국 전통 놀이 체험을 진행하였다.

○ **어서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처음이지? (추진실적: 다문화 및 관내아동 14명, 1회)**

다문화 아동에게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높이고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국립중앙박물관 관람을 기획하였다. 위 4가지 사업은 원곡동 내 문화 격차 해소에 노력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 이해와 연대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높여 선주민과 이주민의 화합을 도모한 사업이다.

*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선정 사업 : 원곡동 신나는 미니올림픽, 어서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처음이지?

○ 내국인 및 정부지원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외국인 발굴

원곡동 인구구성 특성상 외국인 비율이 83%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지원은 내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한정되어 있다. 국가지원이 부족한 외국인 주민에 대해 원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해줄 수 있는 동특화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 **똑똑똑!!! 반찬왔어요. (추진실적: 10명(외국인 5명 포함) 월1회, 누적 5회)**

협의체 위원들이 어르신 취약계층 대상자(외국인 포함)를 직접 발굴하고, 그 대상자에게 월 1회 반찬 및 선물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안부확인을 하였다. 추석과 연말에는 명절 선물세트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였다.

● **폐지모아 차차차!!! (추진실적: 15명(외국인10명) 물품지원)**

2022년 안산시에서 마을복지계획 워크숍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원곡동 지역주민 인터뷰 중 폐지 줍는 어르신은 내국인만 지원하고, 폐지 줍는 외국 노인에 대한 국가지원이 부재함을 알게 되었다. 외국인을 포함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폐지 줍는 취약계층 노인을 발굴·지원하여 정부제도를 보완하고자 '폐지모아 차차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외국인 10명을 포함해 폐지 줍는 어르신 총 15명을 발굴하여 전기매트를 지원하였고, 향후 새마을회 및 동 후원 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대상자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 협의체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협력

원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큰 장점은 위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 사업 대상과 사업내용을 찾아 실행한다는 점이다. **폐지모아 차차차, 신나는 미니 올림픽, 어서와~국립중앙박물관은 처음이지, 다함께 복돋움** 등 위원들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협의체 뿐만 아니라,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이 모든 사업에 함께 하고 있어 촘촘한 복지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 원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기이웃 발굴 및 지원에 대한 비전은 동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이주민과 선주민의 화합을 위해 참여와 소통으로 원곡 동 지역복지 사업을 제시하였고, 문화격차 해소, 문화소외계층 및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외국인 대상자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역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사 진



다함께 북(Book)돋움!



원곡동 미리크리스마스



원곡동 신나는 미니올림픽



어서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처음이지?



똑똑똑!! 반찬왔어요.



페이지모아 차차차!!!



1인 가구 역량강화를 위한 금이동네 따뜻한 동행 "투게더(Together)! 따뜻함은 두 배 더!"

지역	파주시 금촌2동								
사 례 기 간	2023. 4. 1. ~ 2023. 8. 31.								
사 례 내 용	<p>금촌2동은 아파트 중심의 전형적인 주거 지역으로, 인구는 운정 신도시로의 진출, 저출산 등으로 해마다 40대 이하 연령대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1인 세대 및 50~70세 중장년 및 노년 세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인 가구 비율: 31%, 20년 대비 9.2% 증가] 복지 수혜자 대부분은 임대 아파트(금촌주공3단지) 및 고시원에 분포되어 있으며, 관내 고시원 7개소에 300여 명이 홀로 하루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p> <p>통계청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많은 중장년 1인 가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장년기 이후에는 신체 기능의 감소로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의 특징을 보인다. 특히, 이혼·사별로 인한 가족해체, 의지할 친척이나 친구가 없는 사회적 지지와 연대감 부재는 '고독사' 또는 '자살' 등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문제로 악화될 수 있다.</p> <p>때문에, 중·장년 중심 1인 가구 대상의 단계별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 사례내용 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고심하였다. 그 결과, 지역 인적 관계망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고독사 예방 및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1인 가구 역량강화 프로젝트 "투게더(Together)! 따뜻함은 두 배 더!"를 추진하게 되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3d3d3;">프로그램명</th> <th style="background-color: #d3d3d3;">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e6fa;">금이동네 동행프로젝트</td> <td> <p>[0단계] 지역 인적 관계망 점검 및 민·관 협력 강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 고시원장 등을 중심으로 1인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p> <p>[1단계] 대상자와의 라포 형성 식품꾸러미 전달, 안부 확인을 통한 신뢰관계 형성</p> <p>[2단계] 대상자 욕구 조사(개인 심층면담 진행)</p>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e6fa;">미술로 나뉘보는 우리이야기</td> <td> <p>[3단계] 월 1회 심리미술치료 진행 -미술심리치료 및 함께 도시락 먹기를 통한 상호 유대감 형성 -연말 행정복지센터 내 활동결과물 전시를 통한 맞춤형 복지사업 홍보</p>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e6fa;">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td> <td> <p>[상시] 대상자 욕구 분석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p> </td> </tr> </tbody> </table>	프로그램명	내 용	금이동네 동행프로젝트	<p>[0단계] 지역 인적 관계망 점검 및 민·관 협력 강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 고시원장 등을 중심으로 1인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p> <p>[1단계] 대상자와의 라포 형성 식품꾸러미 전달, 안부 확인을 통한 신뢰관계 형성</p> <p>[2단계] 대상자 욕구 조사(개인 심층면담 진행)</p>	미술로 나뉘보는 우리이야기	<p>[3단계] 월 1회 심리미술치료 진행 -미술심리치료 및 함께 도시락 먹기를 통한 상호 유대감 형성 -연말 행정복지센터 내 활동결과물 전시를 통한 맞춤형 복지사업 홍보</p>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p>[상시] 대상자 욕구 분석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p>
프로그램명	내 용								
금이동네 동행프로젝트	<p>[0단계] 지역 인적 관계망 점검 및 민·관 협력 강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 고시원장 등을 중심으로 1인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p> <p>[1단계] 대상자와의 라포 형성 식품꾸러미 전달, 안부 확인을 통한 신뢰관계 형성</p> <p>[2단계] 대상자 욕구 조사(개인 심층면담 진행)</p>								
미술로 나뉘보는 우리이야기	<p>[3단계] 월 1회 심리미술치료 진행 -미술심리치료 및 함께 도시락 먹기를 통한 상호 유대감 형성 -연말 행정복지센터 내 활동결과물 전시를 통한 맞춤형 복지사업 홍보</p>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p>[상시] 대상자 욕구 분석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p>								

사
례
내
용

먼저 관내 고시원(7개소) 중 협력에 긍정적인(5개소) 고시원장들을 만나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고시원 내 칩거자 등 위기가구가 있으면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1인 가구 중 관리비 체납 등 위기징후 파악 시 즉시 신고를 요청하는 등 **지역 인적 관계망을 점검**하였다. 동시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1인 중장년 대상자 중 우울감이 심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참여를 기피하였고, 지원물품에만 관심을 보일 뿐 미술치료 참여는 거부하여 대상자 선정에 난항을 겪었다. 이미 각오한 상황이었다.

대상 후보 28명을 설득하였고, 이 중 참여 의사를 밝힌 8명을 대상으로 6월에 1차 심리 미술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2023 파주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2명이 추가 발굴되어 **현재 10명의 대상자와 관계를 맺고,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식품 꾸러미를 지원하며 안부확인 하고 있다.** 심리미술치료는 첫날 4명만 참여하여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 대상자들은 대부분 건강이 좋지 못하여 날씨로 인해 크게 아프기도 하고, 낙상으로 입원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간 3회의 미술 심리치료가 진행되었는데, 처음 수동적이고 조용했던 분위기가 회차가 진행될수록 참여자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고, 조금 더 시간이 연장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 준 참여자도 있었다. 묵묵히 고개를 숙여 도시락을 먹던 분위기가 서로의 안부확인과 수업 소감을 나누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누군가 나오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이유를 묻고 걱정하기도 한다. 조용했던 시간에 박수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강사의 목소리도 더 활기가 넘친다.

3회의 미술치료수업은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상자들의 변화가 시작되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했다. 수업이 끝나면 강사와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고 대상자들의 수업 참여도를 통해 심리변화를 체크하였다.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운 이들과, 신체적·경제적 현실로 인하여 내적 우울감이 높으나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김○○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 / 60세/고시원 거주]

김○○은 20년 전 학원 운영 등의 사업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떠안은 후 심한 우울증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워 부모님 댁에 들어가 생계를 의지하였으나, 부모사망 후 의지할 곳을 잃고 주거급여를 지원받아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하여 왔다. 그간 생활고 등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두차례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주거급여를 생활비로 써버려 고시원비가 **6개월 이상** 체납된 상황으로 고시원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왔다. 다시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빠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연계하고, 고시원에 방문하였다. 김○○은 저체중으로 영양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았고, 손목의 자살 상흔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 손가락을 굽힐 수 없고, 통증 때문에 잠자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긴급생계비를 신청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밀린 고시원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거액의 채무는 서민 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함께 해결해보자고 했다. 이후 김○○은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수차례 권유한 결과 7월부터 심리미술치료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 첫날 머리를 다듬고 오셔서 예쁘시다고 말씀드렸더니 수줍게 웃으셨다. 어느날은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라며 금촌2동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잠시 낚두리를 늘어놓기도 할만큼 마음을 열고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다. 대상자는 현재는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심리미술치료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미술치료 결과물을 행정 복지센터에 전시하며 맞춤형복지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논의하여 **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지원할 수 있는 1인 가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인적 관계망과의 돈독한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금이동네의 따뜻한 동행"은 지속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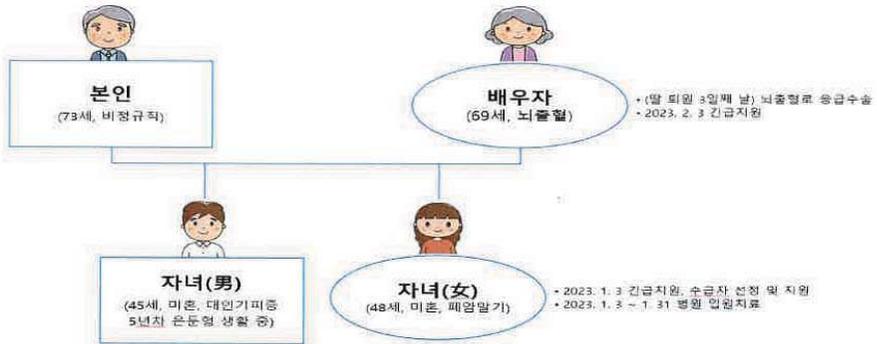
사 진



한 위기가구를 도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부제: 화성시 복지 위기지원 시스템 이상 무!)

지 역	화성시 반월동
사 례 기 간	2023. 1. 3. ~ 2023.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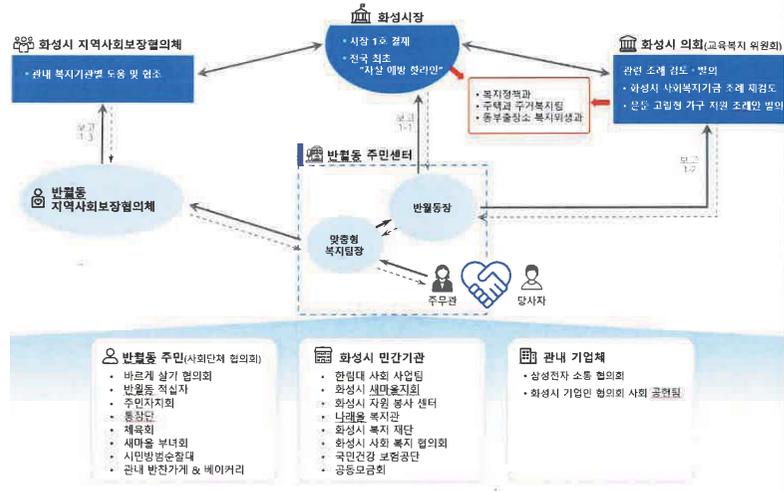
○ "비뽀비뽀 129" 온 마을이 필요했던 순간!



사 례 내 용

- 2023년 1월 3일 병원 의료사회사업가 권유로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딸의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찾아오셨고 상담을 통해 **중한질병으로 인한 긴급지원 의료비 지원(정부형, 경기도형)과 질병으로 인한 실직으로 긴급지원 생계비를 신청했다.** 그 후 나는 그 아주머니의 휴대폰으로 상황설명을 들었고 한달 후 드디어 따님이 퇴원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 퇴원 며칠 후 걸려 온 전화는 어머니가 아니고 따님의 목소리였다. 너무 많이 울어서 목소리에 힘도 하나도 없는 가냘픈 목소리였다.
 "저희 엄마가 그저께 밤에 뇌출혈로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동탄 **병원에서 응급 개도술 후 중환자실에 계세요" 나는 정말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팀장님과 그 가정을 방문하였다.
 한참 향암치료 중인 딸은 지금 거동이 거의 안될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어 어딘가에 의지하며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집안은 찬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며 방문마다 꼭꼭 닫혀 있는 그 모습은 마치 이 가족들의 현재 마음인 듯 보였다.
 엄마가 쓰러지기 전 해 놓으신 반찬으로 향암치료 중인 딸은 간신히 끼니를 떼우고 있었고, 말씀 중간중간 저희 보고 " 췌!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하며 방에는 자신의 남동생이 지금 다 듣고 있을거라며 4~5년 췌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 화성시 위기지원 시스템 이상 무!



사
례
내
용

- 사무실로 복귀 후 팀장님은 바로 동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는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례관리 사업비로 당장 한달분량의 반찬배달을 주문부터 하였다. 항암 치료 중인 딸의 건강과 낮에는 일, 밤에는 어머니 병원으로 출근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방안에서 숨죽여 방문 밖 긴급했던 그때의 상황을 방문 안에서 지켜보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 아들의 식사가 가장 시급했기 때문이다.
- 팀장님과 동장님은 이 가정의 위기상황을 **화성시장 자살예방 핫라인'(전국최초, 시장 1호 결재)**, 화성시 의회 교육복지위원장, 반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사회단체협의회 회장에게도 이 가정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
- 정명근 화성시장님은 즉시 복지관련 과에 반월동 위기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내리셨고, 이해남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님 또한 관련 과에 이 사례를 적극 알려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또한 **조례검토를 통해 "화성시 사회복지기금"으로 이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 그 후 아들을 돕기위한 "은둔형 외톨이 가정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셨다. (이 사실은 시청 관련 담당자들에게 도움일이 없냐며 전화가 오면서 알게 되었다.)
-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님은 관내 여러 복지기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셨고 우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과 사회단체 협의회 회장님은 우리동 주민들의 도움을 모아주셨다. 삼성전자 소통위원회, 화성시 상공회의소 내 기업인 사회공헌팀과 타 동 사업체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

사
례
내
용

○ 긴급지원을 통한 빠른 지원은 물론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화성시 관내 민간 단체, 반월동 사회단체 및 주민, 기업체, 시청과의 소통 결과 1,500만원 상당의 지원과 온 화성시의 관심과 사랑이 이어졌다. 그 순간 우리 화성시는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민·관·기업·주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할 것' 이 말이 생각나는 순간이었다.

○ "이 동네여서 고마워요"

○ 2월말 쯤 아버지께서 찾아오셨다. 온 가족 구성원 한명하명 모두 각자의 늪에 빠져 위기를 헤쳐나올 수 없어서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보듬을 여유가 없으셨다고 하셨다. 은둔하고 있는 아들에게 밤에 속상해서 열리지 않는 문 밖에서 소리내어 울며 소리 소리 지르셨다고 했다.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 나 몰래 받은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원망하셨다고 했다.

아버지의 아픔을 그 당시 누군가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우리 동네에서의 여러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특히 화성시장님과 시의원님, 동장님, 온 동네 주민들이 우리집을 응원한다는 주무관님의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하셨다. 아버지의 편안한 얼굴에 비로소 긴장했던 나의 마음이 따뜻한 봄 햇살에 눈눅눅 녹아내렸다.

○ "이 사례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

○ 이 사례를 계기로 우리 화성시 위기지원 시스템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생겼다. 그리고 함께 극복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나와같은 믿음이 생겼으리라. 서로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을 때 비로소 우리주변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조금은 가벼진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 이름모를 주민분이 우리를 시청에 칭찬합시다 사연을 보내주시어 담당자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이번 경험은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자생력과 긍정에너지의 선순환의 경험은 정말 좋은이웃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을에 정 붙이고 살만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이런 진심을 잘 받아주고 본인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셨던 당사자 가정 구성원 모두에게 무한한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2022년-2023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이웃 발굴·지원 우수사례집

제 작 : 경기복지재단
발 행 : 2023년 12월

**2022년-2023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이웃 발굴·지원 우수사례집**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